표지사진 / 첫 눈 내리던 날 비각(碑閣) 옆 담장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 370 -7139 / 종무소 (054) 370 -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통권 제107호·2009년 1월 6일 발형·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검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화 / 발행인·명성(전임회 / 고문·일진 / 편집 · 운문승가대화 문화부 편집장·혜준 / 편집위원·아산, 현산, 도연, 중호, 승안, 덕운, 서주, 등재 / 사진·유덕 컴퓨터・석인 / 편집디자인·호미디어 (02)2285~3366





불기 25552년 저양호 통원 제 1 0 7 호

분기 2451522년 겨울호 통권 제 1 O







불가 2552년 겨울호 통립 제107호

雲門

목차

호거산 운문사

イ산 운문사 죽림헌

al alol D

동안거 결제법문

교수논단

깨달음으로 가는 길

차례법문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학인논단

想 20

특별기고 2

사찰탐방

선사이야기

라다크를 다녀와서 이 한권의 책

끝없는 여정

담소

우리 절 이야기

수행의 두레박 I

I

운문논평 48 운문소식 5

ヒナーコ

한 등불이 편집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성스님

擔雪塡井 설우스님

8 전통사찰문화의 현대적 가치 II 은광스님

귀경게 편집부

희망의 속삭임 원명스님

이름다운 소통을 위하여 일진스님

5 불교의 사제상(師弟像) 고찰 원효스님

우리 김장날 서주스님

22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성동

수행자가 머무는 곳 무건스님

공부하다 죽어라 자경스님 쥴레, 라다크! 수인스님

내 안의 '인류' 로부터의 자유 원재스님

푸른 솔, 수행 바람 서보스님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 고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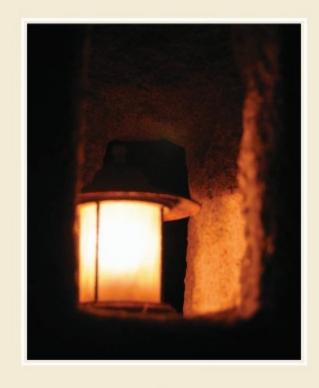
채공간 풍경 편집부

처음처럼 선유스님

童眞入道 현례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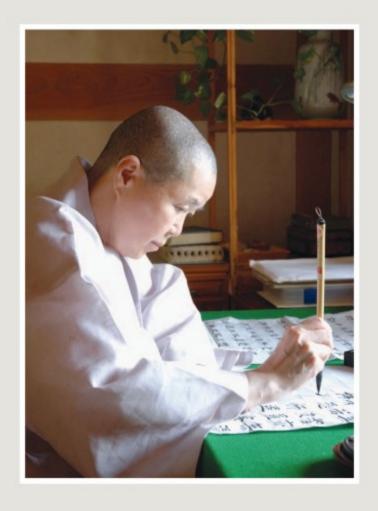
시대 反하기: 시대 遭遇하기 편집부

토우 금룡스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 성 / 운문숭가대학 학장



나의 존재는 나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이는 부모 형제로부터 스승과 도반,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덕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들판을 가득 채웠던 푸성귀들도 만산에 울긋불긋했던 낙엽들도 다 저버려 산천이 텅 빈 듯 합니다. 그러나 실은 새로운 봄을 준비하기 위해 긴 침묵으로 돌아간 것일 뿐, 산천은 본래 그대로 넉넉하고 변 함없습니다.

운문사에서 가장 큰 연중행사인 김장이 끝났으니 이제 한숨 돌릴 만도 하지만 사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행사들로 더 분주해지겠지요. 그러나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이니 분주함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사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사실 올 한 해만 아니라 지나온 세월이 다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만 이렇게 궁핍하고 곤궁한지 불평하고 나는 왜 남들처럼 좋은 부모와 좋은 선생, 넉넉한 환경이 없는지 원망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오늘 이 순간에 무사하게 존재한다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늘 아침 길거리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았다면 넘어져 크게 몸을 상했을 수도 있고, 만약 누군가가 우연히 그 자리에 없었다면 몹시 나쁜 생각을 품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는 무심히 건넨 한 마디 말 때문에, 또는 나를 지켜보는 따뜻한 관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정말이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알고 보면 나의 존재는 나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이는 부모 형제로부터 스승과 도반,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덕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 내가 만난 그 모든 인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 따뜻함이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시작될 겁니다. 오늘 부처님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출

擔雪填井

설 우 / 법인정사 선원장

『선요』에 보면 고봉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닦는데 물들지 마라. 많은 수행자들이 닦는 그 자체에 또 하나의 닦음의 업을 만드는 거야.' 참 이거 깊은 말이에요. 닦음에 물들지 말고 닦음에 매(味)하지 말라.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정진하고 닦는데 그 닦음에 매하지 말고 그 닦음에 구속되지 말고 그 닦음에 묻들지 말라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각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우리는 닦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최상승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상승법이 되려면 닦는 도리에 반드시 눈이 열려야 되고 물들거나 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擔雪填井이라.

어깨에 짊어질 담(擔), 눈 설(雪), 메울 전(填), 우물 정(井). '눈을 짊어지고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공부해라.'이 말이여. 눈을 짊어지고 우물에 한번 메워 보셨어? 눈을 가져다 우물에 부으면 열 짐을 가져다 부어도 물은 그대로야. 표가 없어요. 이게 공부하는 정견(正見)이라. 닦아도 닦은 바가 없이 닦아야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정견을 모르고 공부에 들어가면 반드시 닦는 자는 닦음의 상(相)이 생겨, 법상 (法相)이 붙는 것이지. 피하기 어려워.

법상은 무엇이냐? 법상은 지옥 가는 종자다.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법상이 생기느냐? 흙을 져다가 우물을 메우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흙을 한번 부어 봐요. 표 나죠? 한 짐 붓고 두 짐 붓고 열 짐 부으면 우물에 수북하게 쌓이죠. 공부를 그렇게 하면 닦고 증특하는데 구속이 되고 매이고 또 하나의 업을 생성시키는 거야. 이게 아주 문제예요.

눈 져다가 우물에 갖다 붓는 마음으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또 중생이 본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중생이 없어,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이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 중생이 본래 문제가 없다는 도리를

깨치라는 것이야. 깨치라는 게 다른 소리가 아니 야. 중생이 본래 문제가 없으니까 중생이 본래 문제가 없는 도리를 깨치라는 거야. 그러자면 공 부를 우물에 눈 져다 붓듯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여.

우물에 눈 져다 붓는 도리가 어떤 도리인가?

春有百花秋有月이요. 봄에는 갖가지 꽃, 가을에는 달, 夏有凉風冬有雪이라. 여름에는 맑은 바람, 겨울눈이라. 南無阿彌陀佛

若無閑事掛心頭하면 마음에 걸림 없이 한가름다면 更是人間好時節이로다. 이야말로 인간세상 호시절이라. 南無阿彌陀佛

참구는 반드시 활구(活句)를 참구해야 된다. 의리선(義理禪)을 가지고는 자신도 구할 수없고 결국 병든 여우가 될 수밖에 없다. 참구문의 생명은 활구로 참구하는 것이다.

활구는 어떻게 참구해야 되느냐? 화살이 과녁을 쫓아가는데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는다. 절대 의리를 거기에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오로지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이것만 이번 결제에 살아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모두 비워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은 어떤 시절이 오느냐, '봄에는 백가지 꽃이 퍼서 좋고 가을에는 달이 밝아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옷소매를 스치니 좋고 겨울에는 눈꽃이 좋고 이러한 삶 속에서 타끌만큼도 걸리는 바가 없을 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인간세상이 호시절이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참구문으로 들어가는 거야.좋

(운문사 대응전에서 있었던 설우 큰스님의 무자년 동안거 결제법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통사찰문화의 현대적 가치 Ⅱ

- 운문사를 중심으로 -

은 광 / 운문숭가대학 강사

- 1. 머리말
- 2.문화공간으로서의 전통사찰
- ①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
- ②비전을 제시하는 정신문화의 공간
- 3. 전통사찰문화와 디지털문화의 만남
- 4. 맺음말

2. 문화공간으로서의 전통사찰

② 비전을 제시하는 정신문화의 공간

사찰에 가면 '不二門'이 있다. 이 말의 어원은 『유마경』¹⁾으로 '둘이 아니다' 는 뜻이다. '不二'라는 두 글자에 이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가 모두 들어 있다.

불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둘이 아니라는 것인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삶과 죽음, 선과 악, 자연과 인간, 남과 북, 불교와 기독교, 번뇌와 지혜 등등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사고방식으로는 이 세상의 평화와 내 마음의 행복은 존재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21세기에는 너와 내가 공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不二'라는 말이 담고 있다. 우주의 본질은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관계 속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한다.

가까운 예로 환경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자연이 내 몸과 둘이 아닌데,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함부

1) 정확한 명칭은 『유마헬소설경(維摩結所說經)』이며 줄여서 『유마헬경』 『유마정』이라 한다. 이 경은 3회 14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마거사가 병으로 앓아 눕자 부처님은 지혜 제일인 사리불을 비롯하여 가섭·수보리 등을 병문안 가기를 권하나 그들 모두 유마거사의 높은 법력이 두려 워 문병 가기를 꺼린다. 결국 문수보살이 가게 되는데 유마거사와의 대화에서 문수보살은 대승의 깊은 교리인 불이(不二)법문을 유마거사의 침묵을 통해 깨우치게 된다는 내용이다. 두산백과사전 참조. 로 행동한 결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생명의 원천이 병들고 파괴되어, 마셔야 하는 물과 공기와 흙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들을 의지해서 사는 모든 생명도 병들고 파괴되는 당연한 귀결점에 도착해 있다. 생태파괴와 환경오염의 무서움을 우리들은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이상기온과 지구 온난화,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AI), 아토피, 에이즈, 각종 희귀병과 같은 것들이 경고 신호로써 계속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고신호는 곧 비상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엄청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소박한 생활로 돌아가 좀 더 겸손해지는 것이다. 소박한 생활의 기본은 소박한 밥상에서 시작한다. 우리에게 숨 쉬는 일과 밥 먹는 일 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들의 밥상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잘못된 음식문화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전체가 심각한 지경이다.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이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음식과 식습관에서 비롯된다. 또 지구의 한쪽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3초에 한 명 꼴로 어린이가 기아로 죽어간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발생하는 질병인 비만을 사회문제로 걱정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수천억의 돈을 써야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이와 같은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제반 문제들을 해결 하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훌륭한 모델이 바로 수행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있다. 바로 수행인들의 식사방법인 '발우공양' 3'이 그것이다. 소박한 밥상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발우공양의 정신은 바로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 틀림없다.

사찰 음식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 조상들이 중요하게 간직해온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음식이 만들어지며, 중요한 특징으로는 채식으로만 이루어진 식단이라는 점이다. 최대한 간소하게 만들어진 음식으로 수행인들은 '발우공양'이라는 형식과 의식을 갖추어서 식사를 한다. 수행자들이 발우공양을 할 때는 가사를 입고 공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음식을 대할 때 얼마나 경건한 태도와 자세로 임하는지를 알 수 있다. 수행자들이 가사를 입는 경우는 불교예식과 발우공양, 탁발, 법문, 강의할 때등 지극히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거행할 때만 입는다. 그러므로 가사를 입고 발우공양을 한다는 것이 이미 발우공양의 정신을 모두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공양에 깃든 깊은 뜻과 밥을

²⁾ 음식문화란 식품의 생산-조리-식사행동-영양학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국립민족 박물판의 관장인 石毛直 進는 음식문화를 위의 네 분야 중에서 식품생산과 영양학은 자연과학과 중복되므로 조리와 식사행동 두 가지를 좁은 의미의 음식문화라고 정 의하고 있다. 서혜경, 「불교의 음식문화」, 비교민속학 24집, p.197, 참조.

³⁾ 발우(鉢盂)란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승려가 사용하는 밥그릇을 가리키는 말이다. 발우의 어원을 살펴보면, 鉢은 범어 파트라(patra)의 중국어 표기 발다라(鉢多羅)를 한역한 것이고, 우(盂)는 그릇을 뜻하는 한자로 두 말이 합성된 명사이다. 뜻으로 풀어보면 응량기(應量器) 또는 응기 (應器)라 한다. 응량기란 양에 마땅한 그릇, 즉 먹을 만큼만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이다. 또 남의 공양을 받기에 마땅한 수행과 덕을 갖춘 성현 이 사용하는 그릇이란 뜻도 된다. 지명, 『천하일발』, 이른아침, 2007. p.177, 참조. 지관, 『가산불교대사림』, 권8, 가산불교문화연구원, p.406, 참조.

공양(供養)이란 말은 범어 '푸야나(pujana)' 를 의역한 것으로 '공급하여 자양(養養)한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본래 인도에서 종교적 성자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으로 음식이나 옷을 올린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풀이하고 있는데 첫째 웃어른을 모시고 공경의 마음을 담아 특히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 둘째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三寶나 죽은이의 영혼에게 음식, 꽃 따위를 바치는 일이나 또는 음식을 말한다. 셋째 불교에서 식사나 식사를 하는 일을 일컫는다. 지명, 『천하일발』, 이른아침, 2007, pp.13~14, 참조.

먹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의 예의와 공경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행자들의 발우공양법을 식당작법(食堂作法)#이라고 한다. 공양을 하면서 게송을 외우는데 깊은 명상과 감사·서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五觀偈' 5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양을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법을 먹는 행위가 아니고 수행의 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수행을 돕는 좋은 약이라고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맛으로 먹는다거나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일은 있을 수 없다.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이 나에게 도착하기까지 무수한 생명들의 수고로움과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사실, 곡식이 자라고 음식이 만들어지는일은 온 우주가 다 함께 참여하여야 이루어지는일이다. 늘상 먹는 한 그릇의 밥이지만 밥은 이미 밥이아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밥을 내가 받기에 부끄럽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불교의 근본목적인 自覺覺他를 염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식당작법을 통해서 우리는 발우공양의 정신과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발우공양의 의미와 특징적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공양이라는 점이다. 『유마경』에서는 '밥에 평등한 자는 법에 평등하다'고 했다. 발우공양의 평등 정신은 불교의 세계관을 대변하고 있다.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둘째, 철저히 위생적인 청결공양이며, 조금도 음식물의 낭비가 없는 공양이다.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만큼을 덜어서 먹어야 하는데, 자기의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과도 관련이 있다.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하면 음식을 남기게 되거나 과식을 하게 되므로, 욕심을 버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공양을 하여야 한다. 음식을 남기거나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사가 끝났을 때 처음 밥을 받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공양이 끝남과 동시에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끝나게 되어 다시 그릇을 씻을 필요가 없다. 설거지를 위해 공양 전에 받아두는 한 그릇 분량의 물에,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식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 생활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동공양이다.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자기 자리에서 공양을 해 야 한다. 식사시간을 어기거나 먹기 싫다고 식사를 안 하거나 본인 편리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없다. 공 동체에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면서 나를 공동체의 시스템에 맞추는 것을 배우며 화합을 도모하는 공양 인 것이다.

음식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와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발우공양의 정신처럼 무수한 생명의 수고로움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매일 식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밝고 환하게 변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가 밝아져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意

〈다음호에 계속〉

시 세상에서 가장 출근

큰 자비실라 확실한 지혜를 갖추시고

숙실의 할예를 호텔하여 자유자제 하시어
고를 받는 중생을 불쌍의 여지 구비하시는 무너실라
은 수주가 실로 한 분이띠
일체가 평등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실자
한 병성는 공목으로 불법을 많아
나와 떠가 울이 아ໄ울 때찰따다
실체의 차별심을 여의고자 수행하는 분들에게
이 목숨 바줘서 공명하고 따르옵니다

마면보살의 「해숭기신론」 러덩이 꽃에 비자로를 등

⁴⁾ 식당작법은 小心經이라고도 한다. 大心經은 제를 지내고 대중이 특별공양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소심경은 평상시 발우공양을 할 때 암송하는 경을 말하며 마음을 닦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소심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처님을 희상하면서, 그 공덕을 찬탄, 공경, 예배하는 마음 ② 모든 중생의 노고와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 ③ 자신의 하루 수행생활을 돌아보는 반성하는 마음 ④ 모든 배고 픈 중생들과 함께 평등하게 나누어 먹겠다는 자비의 마음. http://blog.naver.com/saynon/참조. 『석문의법』법률사, 2000, pp.59~75,참조.

^{5) 9.} 程利(五觀傷): 計功多小量彼來處 付己德行全缺應供 防心維過貪等為宗 正思良藥為療形枯 為成道業應受此食

희망의 속삭임

원명/사교과

대중스님, 반갑습니다. 사교반 원명입니다.

얼마 전에 본 헬렌 켈러의 자서전 『사홀만 볼 수 있다면』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단 사흘만이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펴는 동안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이 저물고 다시금 어둠이 닥쳐올 때,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한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자, 이제 그 사흘을 어떻게 보내시럽니까? 여러분의 눈길을 어디에 머물게 하고 싶습니까?"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는 생후 7개월 때 앓은 열병으로 인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 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설리번이라는 스승을 만나고 스스로의 노력에 힘입어 수려한 문장력을 가 진 문필가로, 장애인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회사업가로 이름을 날린 인간 승리의 대명사입니다.

이번에는 제 아버지 얘길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어릴 때 앓은 열병으로 한 쪽 다리를 잃은 소아마비 장애 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똑바로 서 있거나 바르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 는 분입니다. 게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딱히 추억이랄 것도 없는 분이지만, 제게는 영웅입니다. 몸이 아프고 돈 좀 덜 벌어도 직업을 가진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았고, 진실함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몇몇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평범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 노력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넘어진 아이가 손을 털고 일어나듯, 그들에게 장애는 불편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이상적인 사회의 긍정적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네들에게 비추어 볼 때, 신체적으로 건 강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이른바 '정상인'이 더 위험한 존재가 아닐까 염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그런 장애인에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갖고서도 게을러서 하지 않는 일이 더 많고, 나보다는 남 탓, 상황 탓을 하며 진실 하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남 원망하기를 밥 먹듯 하니, 멀리는 헬렌 켈러, 가까이는 아버지에 빗대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있다면,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요, 의사이신 그 분을 만났고 그 가르침을 만나 적어도 잘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는 부처님과 나, 그리고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철썩 같이 믿고, 여러 선배 스님들의 자취를 따라 살아 봐야 할 일입니다. 이 길을 살아 보겠노라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사람의 한 목숨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껏 겪은 일 보다는 겪어야할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좌절한 채 엎어져 있어야 할요인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야 할 기회입니다. 손가락 몇 개 없이도 피아노를 치고, 팔 다리 없이도 일반 올림픽에 당당히 출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세상을 뛰어넘어 보겠다고 큰 소리 친 수행자에게 진정 장애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례법문을 앞두고 일찌감치 악몽을 꾼 일이 있습니다. 대중이 모일 시간은 다가오는데 법문용 원고를 잃어버려 온 도량을 헤매며 한숨을 쉬다가 도량석 목탁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제 인수인계 받은대로 법상에서 무사히 내려가 대중스님들을 향해 합장 저두할 일만 남은 지금, 전 또 다른 자유를 찾은 기분입니다. 마음을 짓눌렀던 하나의 과정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성불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 생에 걸쳐 겪어왔던 사건 사고가, 지나가버린 차례법문처럼 '별 일 아 니었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사흘 아니 단 세 시간뿐이라 하더라도, 전 삭발염의한 지금 이 모습을 여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세 시간을 위해 장애라 불리는 많 은 것들 앞에서 고민도 방황도 실컷 해 볼 작정입니다.

푸른 숲도 붉은 단풍도 이제는 다 사라져 삭막한 겨울입니다. 벨 듯이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도 새 봄에 피어날 꽃망울을 머금은 목련나무의 생명력처럼 우리 앞에 놓인 장애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러 대중 스님들과 하나의 이름, 하나의 모습임에 감사하는 저녁입니다.

대중 스님 성불하십시오 総

아름다운 소통을 위하여

일 진 / 학감스님



자연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던 날이 있었습니다. 자연이 유난히 신비스럽다고 감동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말이 과거형으로 「있었다」고 표현되어졌네요. 그만큼 지금의 저는 벌써 감성이 무감각해 져 버렸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대 부분 아름다움과 신비의 일상을 그저 무덤 덤하게 흘려보내기 일쑤니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이 참 신비하고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어째 서? 어쩌다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오늘 새벽 예불길에 차가워서 더 맑고 투명했던 하늘의 달과 별을 혹시 관심 있게 보았는지요? 동짓 달 보름을 엊그제 지낸 새벽달은 제 생애 처음으로 본 것 같은 달빛이었습니다. 아마 겨울 소나무와 어우러져서 였을까요? 제가 갑자기 새벽달이며 자연을 아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박한 감상에 젖어버렸어요. 해마다 보내고 맞이하는 보통의 일이지만 졸업생을 보내는 아쉬움과 한 도량에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저 멀리 서로 바라만 보았던 서먹함과 무덤덤했던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얼마 전 받은 학인스님들의 편지가 저를 이렇게 순수 속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또 지나간 날들을 새삼스럽게 추억하며 반성하게도 하였답니다.

지난 여름방학을 마친 후 첫 강의 시간에, 역시 강사는 학인스님들 앞에 강의할 때가 제일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여름방학은 개인 사정으로 토굴에서 혼자 지냈거든요. 그러 고 보니 저는 평생 학인을 의지하고 학인 덕분에 잘 살아온 셈이기도 합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장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삶의 힘이 학인스님들이었음을 깊이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삶의 그림자를 되돌아보며 생각하게 한 투명한 영혼의 편지전문을 양해도 얻지 못한 채 읽어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의 소승! 부사님, 당실의 대없이 사회 및고 자비로우실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따라 정장하시는 모든 수행자들께 귀의하위된다.

스님! 사교를 다 마칠 이 겨울에 스님에 편지를 올리자니,... 마음 인천이 팬시리 뭉클합니다. 낮 계 드리와질 사들 아래서 오늘따라 당신이 참으로 거 보입니다. 지정신 끝자꾸에 오랜지 항기 받으며 한없어 달려가고픈 한적한 과수원 말을 인상하며 ….

한가몸에 쉬는 낮안데도 왠지 마리없은 마음은 시교를 마친 저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고 는 있지만... 이렇게 가라앉은 마음일 백면 도반들과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찾잔을 바라보도라 면 나의 전쟁한 모습'이 무엇인마에도 의문을 던집니다. 그것조차 의미가 없을 땐 자리로부터 되돌 이볼 수 있는 시간들, 전쟁인 자신을 막도 볼 수 있는 마음들을 사유하여 챙겨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학밥스님!

마스한 면을 햇살 아래서 화색및 기왓장 사이도 쉽 없어 녹이내라는 역수가 마치 짧았던 시간만 를 저희 모두의 고마을과 이쉬움이 그리고 취회의 눈물로 정회되어 흐르는데 봅니다. 이렇게 기록한 명점을 배우고 될 수 소님에도 향한 마음이라면서 많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겨울병학을 가다라는 저 취물의 정서가 한 층 더 이름답게 거듭니는 시간들입니다.

스님, 지난이름 서상을 배울 배약는 또 다른 깊이와 밤동으로…. 저희들은 사고의 금강봉과 원박 병으로 대없이 알차게 공부하게 될데 전심으로 밤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본에서 如如하시면에 대욱 이름님습니다. 바람이 물이와 잘비진 나무들을 축려할 때에도 작은 비롯도 하지 않는 고요형을 가로 쳐 주실 때에도 스틱의 가락질은 무척이나 그고 이름니었습니다.

저역들의 학만스님!

매일의 새벽은 변함없이 밝아오는데, 자유란 우리 앞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방송을 낳을 수도 있 작만 사회들은 그래도 더 아름다운 전략의 기도형으로 만하들일 것입니다. 서투론 우리들의 마음바침 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잡아봅니다. 또나른 반응 살면엔 방이로움과 멀리는 반응의 반감이 교차합니다.

이제는 푸른 바다와 같은 포용력으로 높은 하늘과 같은 원망함으로 그리고 냉찰한 통실력으로 확 역의 바다를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가락점 속에서 아름다운 취회와 아름다운 절제의 아름 다운 삶의 자세를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사교를 마무리하며 존재의 미턱과 자세를 살쓴하면서 가장 참여한 마음으로 기도세합니다. 초발성의 수행자로서 기도와 참회로써 현재를 부단히 노력 정전할 것 업데나, 우리들의 학급스님, 강작스님, 결심으로 감사합니다.

급당에서 저희 모두 상배 드립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초록색 고운 종이에 또박또박 써내려 간 편지글을 읽으며 저는 알 수 없는 감회에 젖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확인스님들과 탁마하며 함께 살면서 모아 둔 편지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번 받은 이 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이 겨울철이기 때문입니다. 새벽달이 유난히 밝고 쏟아지는 별빛이 유난히도 낮게 드리워졌고, 우리는 이제 모두 마무리해야 할 시간 앞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다시 감사와 정성을 다하여 새롭게 피어나야 할 때입니다.

모두 처음 마음으로 정진합시다.

무자년 겨울철 삼장원 圖云室에서 일진 합장

불교의 사제상(師弟像) 고찰

원효/사집과

목 차

1.들어가는 말

2.율장 - 『사분률』 「수계건도」에 의한 고찰 3.경장 -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한 고찰 4.논장 - 『보리도차제론』에 의한 검토 5.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른 사제상 제시 6.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늘 삶과 죽음이라는 갈림길에서 고통과 두 러움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아침이슬과 같이 잠깐 존 재하는 쾌락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사용하고 있 다.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이 소 멸되는 과정'을 깨달은 부처님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현재까지 부처님 과 부처님의 깨달은 제자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교육은 지식전달의 의미만 부각되 었고 인간적인 만남이었던 사제관계는 크게 변질되었 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고 출가한 우리들이 스승을 향 해 갖는 향심(向心)과 존경심이 예전만 같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삼장 (三藏)을 통해 불교의 사제상을 고찰하고 스승의 중요 성과 제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 한 까닭은 오늘날 승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율장 - 『사분률』 「수계건도」에 의한 고찰

1) 부처님과 제자

부처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바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과 설법이다. 부처 님이 설법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번째 만났던 우타야 범 지는 부처님의 고요한 감관과 화창한 얼굴을 보고 환희 심과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부처님을 만나게 된 우타야 범지는 "나는 세상에서 집착없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서 가장 높은 사람이며 모든 하늘과 인간들 가운데에 나 와 같을 중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이 렇게 부처님으로 인해 환희심과 위로를 얻었던 우타야 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용기가 없어 부처님 께 가르침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지 못하고 다섯 비구를 만나러 가는 부처님을 바라보기만 했다. 부 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부처님의 결에 서 범행을 닦아 괴로움의 근원을 끊고자 합니다."라고 했던 고백을 우타야 범지는 끝내 하지 못한 것이다. 그 리하여 우타야 범지는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2) 화상과 제자

화상의 존재는 제자에게 구족계를 주고, 위의를 가르 치기 위해서이다. 비록 전혀 흠이 없는 부처님과는 달리 화상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 승의 모습을 갖추어서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이가 화상 이 될 수 있도록 '화상의 법' 1)을 제정하셨다. 이러한 화 상은 제자에게 구족계를 주어 자신의 밑에 둘 수 있었 다. 반면에 화상의 제자가 되어 스승으로부터 범행을 닦 게 된 비구는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몸과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2)

제자는 날마다 화상에게 세차례 문안할지니, 아침· 낮·저녁이다. 화상을 위해서 두 가지 일로써 보살펴 야 하는데 괴로워도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는 방 과 집을 수리하는 일이요, 둘째는 의복을 빨고 깁는 일이다. 화상이 법답게 시키는 일을 모두 받들어 행하 라. 다른 곳에 심부름을 보내거든 사양하거나 거짓으 로 핑계대고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 대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승을 모시는 일은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화상을 모시고 수행하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은 또한 제자가 잘못을 하였다면 화상으로 하여금 제자를 꾸짖어서 잘못을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였다. 이것은 단지 꾸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화상에게 꾸지람을 받은 제자는 화상에게 찾아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참회하되, 받아주지 않으면 날마다 아침과 낮과 저녁으로 세차례 참회해야 한다. 진실된 참회는 나를 비워서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자신과 스승과의 약속이다. 또한 스승은 이런 진실된 참회를 받아주어야 한다.

3. 경장 -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한 고찰

1) 「입법계품」에서 보여주는 스승의 모습

① 근기를 보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을 만나서 발심을 하게 되고, 드디어 용기를 내어 구도의 길을 떠나게 된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문수보살이 선재동자의 근기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문수보살이 선재동자를 보고는 오랜 옛적부터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여러선근을 이미 심어서 해탈법문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선재동자를 위해 법문을 하고, 과거에 심은 선근을 보게 하였다. 제자의 근기를 살펴고, 공부의 진전을 살판다는 것은 스승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② 선재동자를 칭찬하다

선지식 미가장자는 발심과 강한 구도심으로 스승을 찾는 선재동자를 만나자 문득 사자좌에서 내려와 선재 가 있는데서 오체를 땅에 엎드리고 한량없는 갖가지 향 과 꽃과 갖가지 공양거리로 공양하고 일어서서 칭찬하 였다. 비록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상징적인 모습임은 분명하나 미가장자라는 선지식을 통해 스승으로서 제 자를 기꺼이 칭찬하는 모습은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왜 나하면 제자를 이렇게까지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승 으로서 자기를 비우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된 스승은 제자가 자신보다 더 잘나고 뛰어 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다.

③ 선지식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르치다

「입법계품」에서 보여지는 선지식들은 그들 스스로 구 도의 길에서 선지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선재동자에게도 선지식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착한 남자여,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결정코 선지 식을 찾아야 하느니라. 착한 남자여,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의 가르치 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선교 방편의 허물을 보지 말라.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기 마련 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스승을 향해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를 저절로 알게 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제자로서의 자세를 배 우지 않으면 안되고, 스승도 제자에게 스승을 향해 가져 야 할 마음가짐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말 하고 있다.

2) 「입법계품」에서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

① 모름을 인정하고, 항상 듣기를 원하다

선재동자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스승을 만날 때마다 늘 하던 고백이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가 알지 못한 다.'는 것과 '스승께서 자신을 가르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데 익숙하 지 않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모름을 인정해야 하며 이럴 때 우리는 스승에게 나아가 우리의 육근(六根)을 기울여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② 참회하고 보리심을 내다

강한 구도심으로 스승을 찾아 유행하고, 스승의 가르 침에 늘 귀를 기울였던 선재동자가 만난 승열바라문이 라는 선지식은 몸을 날려 불구당이에 들어가는 고행을 통해 온갖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승열바라

¹⁾ 구족계를 받은 지 십년이 안되고 다 배울 것을 다 배우지 못했으며 여범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자는 화상이 될 수 없다.

²⁾ 부처님께서는 '화상의 법' 뿐만 아니라 '제자의 법'을 제정하셨다.

문을 만났을 때, 선재동자는 승열바라문으로부터 "칼산 위에 올라서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면 보살의 행이 모두 청정하여 진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선재 동자는 그리도 강한 구도심과 스승을 향해 절대적인 민 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은 얻기 어 렵고, 청정한 법을 얻기 어렵고, 부처를 만나기 어렵고, 모든 감관을 구비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마(應)가 아닌 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끝내 이 선지식이 삿된 스 승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자재천왕. 화락천왕 등이 숭열바라문을 찬탄하는 소리를 듣고 참 회를 하게 된다. 그 이후의 선재동자의 행동은 더욱 눈 여겨 볼만하다. 참회를 한 선재동자는 칼산에 올라 아무 런 의심 없이 몸을 불구덩이에 던지게 되었다. 선재동자 가 스승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비우고 있 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③ 법문을 기억하고 생각하다

선재동자는 선지식을 만나고 헤어질 때면 늘 기뻐 뛰 놀고, 스승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 게 앙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직하면서 남쪽으로 떠났 다. 그리고 선재동자는 다른 스승을 찾아가는 길에서 항 상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했다. 선재동자 는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에 마음을 쏟을 줄 알았다. 이 러한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스승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논장 - "보리도차제론」에 의한 검토

1) 『보리도차제론』에서 말하는 스승

「보리도차제론」에서는 스승의 존재에 대해 '부처님 의 모든 법을 얻어 원만히 갖춘다는 것은 스승에 의존하 여, 스승을 근원으로 삼으며, 스승에게서 태어나 자라나 고, 스숭에 의지하니, 스숭이 인(因)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탈하는데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수행에 가장 필요 한 존재인 스승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일까?

선지식은 조복(調伏) · 적정(寂静) · 근적정(近寂 靜)에 능하고, 빼어난 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경륜 을 쌓고 그것을 잘 깨달아 강설에 능하며, 자비로운 모습으로 싫증을 내지 않으니 이에 의지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길이란 위에서 말한 조복 (戒) · 적정(定) · 근적정(禁)3) 곧, 삼학(三學)을 닦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승은 제자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 는 과정에서 먼저 삼학을 갖추어야 하고, 스승은 강설에 능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향한 자비와 관심이 필요하다.

2) 「보리도차제론」에서 말하는 제자

스승을 삼아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가장 먼저 갖추 어야 할 것이 법기(法器-법을 담는 그릇)이다. 법기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고, 바른 도(道)와 유 사한 도(道)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대구도심 (大求道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승을 의지함에 있어 서 스승을 삼고자 하는 자가 온전한 법을 갖추었는지 갖 추지 못하였는지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에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방법 과 가행(加行)으로 의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음으로 의지하는 방법으로는 자기 주장을 버림과 자신을 스승 의 의지(意志)에 맡김과 효심이 있는 효자처럼 마음을 냄과 스승의 안색을 살피는 것 그리고 믿는 마음이다. 믿는 마음에 대해서 "보리도차제론"에 나오는 「보거다 라니(寶炬陀羅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믿음은 예비단계의 어머니와 같아 모든 공덕을 지켜주고 증장시키며 의심을 없애며 강을 건너게 해주고 믿음은 묘락성(妙樂城)의 상징이라네.

스승을 향한 믿음은 스승의 허물을 찾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승의 허물이 조금 보인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다. 이렇 게 함으로 선은 증장하고 허물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햇으로 의지하는 방법이란 첫째는 스슷에 게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스승에게 하는 공양은 부처님

것이다. 셋째는 어떠한 가르침에도 스승에 대한 공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스승의 가르침이 비록 옳지 않아 행하 지 않을지라도 그 공경심만큼은 유지하는 것이다. 『보리도차제론』에서는 스승을 의지하는 이득과 허물

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스승을 의지하는 이득은 부 처의 지위와 가까워지며 악업과 번뇌가 힘쓰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보살행을 기억하고 갖추게 되어 구경의 모든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 스승을 의지하는 이득이 큰 만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허물 또한 큰 법인데 교 수사(敎授師)를 모독한 이는 무간나락(無問奈落)이라고 일컫는 두려운 지옥에 떨어져서 큰 괴로움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시리들의 마 음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을 향해 경멸하는 마음, 분노하 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런 마음은 우리의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몸과 말로써 섭기는 것으로 몸으로는 목욕과 안마와 청

소와 간병 등이 있고 입으로는 스승의 공덕을 칭찬하는

5.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른 사제상 제시

바른 스승상

스승은 먼저 제자보다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앞서 있 어야 한다 그러므로 삼학(三學)을 먼저 갖추어서 제자 에게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 자의 마음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제자에게 무엇 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자비와 관심이 스승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삼장(三藏)에 서 언급했듯이 '스승을 모시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야 한다. 이를 위해 「사미니율의」 4)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2) 바른 제자상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견해를 비워 야 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간절함이 준비되어 있어 야 한다. 그리고 바른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 추되 만약 이런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처님의 가르

께 올리는 것과 같아 복덕자량이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침에 의지해 분별하여야 한다. 이미 자신의 스승으로 받 아들인 후에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어야 하 며 늘 스승의 가르침을 경청(傾聽)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일상생활에서 스승을 모시는데 소홀히 하면 안된다. 깨달음의 길에서 스승을 모시면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궂은 일이나 심부름은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 지 말고 늘 스승을 위하여 '작고 큰 일 더러운 일' 등 모든 일을 하겠다는 마음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6. 나가는 말

인간은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가운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의 인연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중요 하고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 라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인 생사(生死)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삼장(三藏)을 통 해 보면 깨달음을 이룬 스승을 통해 제자 또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승은 스승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자는 이러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스승의 가르침에 육 근(六根)을 기울여야만 한다. 본고를 통해 늘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존재해야만 할 사제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한 사람의 수행 자로 소중하게 여겨 자비로 가르칠 수 있는 승가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와 같은 회복 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머물러 사람들에게 전해지 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இ

참고 문헌

- 石葉哲牛 역. 『시분률」9. 토방. 1996.
- 무비역, 「화엄경」(8)~ (10), 민족사, 1994.
- 총카파, 청전 역, 「깨달음에 이르는 길 '람림'」. 지영사, 2005.
- 쫑카파, 양승규 역, 「보리도차제약론」, 시륜, 2006.
- 일타 편, 『사미니율의』, 토방, 1992.

- 이 논문은 제4회 전국승가대학 학인논문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논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³⁾ 조복· 적정·근적정은 삼학(三學)으로 악을 그치고 선을 맺하게 하는 것이 계(戒)요. 계로 인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잡념이 없는 것이 정(定)이며 정으로 인해 대상을 올바르게 관찰하여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 해(豊)이다.

^{4)『}사미니율의』에서는 삼보에게 귀의하는 것과 큰스님 모시는 법 그리고 스승을 모시는 법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히 나와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스님네께 여쭙니다

김성동/소설가

오늘 이 땅에는 부패타락하고 부화방탕한 북미 합중국식 양키문화와 양키예술이 넘쳐나고 있습니 다. 더하여 북미합중국 마름나라에서 밀려오는 왜색 문화와 왜색예술 또한 무서운 서슬로 덮쳐 오는지 오래이구요. 문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 학예술에서는 깡패, 도둑, 강도, 살인자, 배신자, 배 덕자, 파괴분자, 패덕주의자, 색정주의자, 변태성욕 자, 윤락적 인간, 자살자 같은 인간 탑세기들을 자랑 하는 범죄적 낙서 쪼가리들이 이른바 작품이라는 이 름 아래 쏟아져 나옴으로써 사람들 의식을 몹시 구 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숭미사대주의 와 공미굴종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제국주의 북미합 중국의 신식민지 싸울꾀를 올바른 것으로 여기게 하 며 조국의 쪼개짐과 동족상잔의 전쟁위기를 부추기 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실팍한 전도사가 된 것이 지요.

오늘 학교는 오로지 본능적 인간을 길러내는 고 장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출세주의만을 키워주는 마당이 되 었습니다. 이러한 일됨새에서 청소년들이 개인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물인간이 됨으로써 이웃과 사회와 겨레 운명에 대해서 데면데면하게 되는 것은 차라리 마땅한 일이겠지

자본의 사회에서 돈과 권력 있는 사람 아들딸들에게는 배움의 특권이 주어지고 근로민중 아들딸들에게는 배움길이 막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론바 「실용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실용주의교육에서 사람을 「뛰어난 자」와 「뒤떨어진 자」로 나누어 가르친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가없이 지켜내기위한 높은 싸울꾀가 됩니다. 뒤떨어진 아이들에게직업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돈 없고 권력 없어 배움길이 막혀버린 근로민중 아들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 그들의 피땀을 빨아먹자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회에서 아이들 배냇솜씨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내팽개쳐 둔다는 것은 돈과 권력이 없어 사

회 밑바닥에 사는 근로대중의 자녀들은 세세생생을 두고 사회 밑바닥에서 살아야 하고 돈과 권력 있는 자본가 · 권력자 아들딸들은 길이길이 사회 윗자리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높은 싸울꾀가 되지요. 이 땅에서는 북미합중국 본을 따서 60년이 넘게 청소년들한테 실용주의 교육을 시켜 그들을 북미합중국과 북미합중국 마름인 권력자와 자본가들 머슴으로 키워왔습니다.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낱낱 사람 들에게 그 잘못을 따질 수 없고 골칫거리는 교육입니다. 밑뿌리에서부터 교육이 잘못된 탓이지요. 진리의 잣대를 「유익성」과 「효과성」에서만 찾는 실용주의 교육 탓이고 이른바 실용주의 교육이라는 것이나오게 된 존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 탓입니다. 함포로 때리고 육전대와 함께 선교사를 상륙시킨 2백년 전부터입니다만, 가짜 해방인 8·15와 함께 이땅에 들어온 것이 실용주의 철학입니다. 양말로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더군요. 가짜 해방인 8·15와함께 이땅에 정복군으로 들어온 북미합중국 병정들은 그들의 철모와 「워커」속에 실용철학을 담고 들어와 우리 할아버지들 뇌를 씻어버렸고 마침내는 우리 철학, 우리 정신이 그들한테 다스려졌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용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무리가 왜 시는가? 그러나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삶일 수 있는가? 하는 샙자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태껏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것은 「세계존재」의 골칫거리일 것입니다. 「세계」는 정말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계존재는 무엇인가? 예로부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으니 - 세계가 물・불・원자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내대는 것과 이데아 또는 「신(神)」밖에 있지 않다는 내댐이었으니 - 유물론과 관념론이지요.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근대 에 와서도 여지껏 가장 종요로운 골칫거리가 되었으 니 - 「세계는 물질과 정신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본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헤겔의 「절대정신」이 있 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에서는 버클리 · 흄 같은 이가 내세운 주관관념론인 「경험론」이 있습니다. 버 클리와 흉이 말한 경험론이라는 것은 「세계에 존재 하는 것은 나의 정신 뿐 이며 「존재하는 것은 지각 (知覺)된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세 상만물이 존재한다」는 극단적 「유아론(唯我論)」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론은 그 뒤 오스트리아 실증주의 철학자 마하에 의해서 더욱 뼈대가 잡혔으 니, 마하는 『세계에 실재하는 것은 감각적 요소인 「세계요소」뿐」이라고 하였지요. 버클리・흉・마하 같은 「경험론」에서 비롯하고 있는 것이 듀이의 「실 용주의철학」입니다. 듀이는 여러 가지로 까다롭게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세계는 경험 의 산물이므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고 보는 것이니, 주관관념론이올시다.

여기서 「물질세계가 정험의 산물인가? 정험이 물질세계의 산물인가?」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 실 용주의 철학에서 부르짖는 경험론은, 사람이 스스로 의 경험과 주관적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세계를 만 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침내 사람이라는 것 은 자기의 이기적 욕망에 따라 바깥세계와 서로 이 음고리를 맺으며, 또 제가 바라는 바에 맞게끔 세계 를 뜯어고쳐 나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른바 「제국주의 논리」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유익성은 진리라고 보는 것이 실용철학인데, 골칫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이지요. 유익하다는 것은 계급사회에서 계급의 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김아무개라는 많이 모자라는 중생이 『운문』지에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운문사」가 있는 것인가? 아니지요. 김아무개가 『운문』 지에 이런 글을 쓰던 안쓰던 『운문』지와 「운문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몸소 겪어 보지 않아도 거기에 그대로 장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나타낸 것이므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용철학에서는 진(眞) 곧 참된 것을 실용적인 것으로, 선(善) 곧 좋은 것은 즐거움을 주

는 것으로, 미(美) 곧 아름다운 것은 유익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유익성을 주는 것, 곧 즐거움과 호 타고난 바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자리에 뭇함을 주는 것은 다 진리로 되는 것이지요.

실용철학이 끼친 가장 큰 해독이 교육이론에 실 용주의를 끌어다 쓴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다운 삶 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육」일 것 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의 하늘 밑에 벌레는 자주 성과 창조성 그리고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 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누구나 이런 본바탕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자라면서 저절 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교육을 통해서 만 이루어집니다. 교육에서 가장 대모한 목적이 있 요. 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세계와 자기 운 명의 주인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무리는 원시공산사회가 뜯어 헤쳐지 고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삶 틀거리로 뿌리박으면서 부터 빈틈없이 권위주의적인 계급사회에서 살아왔 습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따라서 빈틈없이 계급사회 「돈이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모든 것을 아퀴짓는」 사람들을 자본의 틀거리에 맞춰 구실을 치루게끔 길 들이고 있습니다. 자본의 사회는 오로지 돈만을 위 한 이기주의가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서 교육은 사람들에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기 리위하는 생각만 심어줍니다. 자본의 사회에서 사람 들은 자본가가 되어 남의 것을 긁어먹거나 자본가들 품팔이꾼으로 그들의 손발이 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자본의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잡게끔 사람들 을 가르친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실용주의 교육이론에서 바탕이 되는 것이 이른 바 「유전결정론」입니다.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는 홈되게 이른바 「정보」를 대량생산하고 대량집적해 「유전자」의 나음과 못함에 바탕해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어머 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숙된 생각입

니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몸바탕과 배냇솜씨, 곧 서 본다면 이 타고난 바탕이라는 것이 곧 유전자겠 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품격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바탕에 따라서만 아퀴지어질런지요? 아니지 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과 지식에 따라서 금쳐집 니다. 그리고 이 사상과 알음알이라는 것은 타고나 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모둠살이를 통해서 이루어집 니다.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모둠살이 이음고 리를 맺는가, 곧 어떠한 모둠살이 입김을 받는가에 따라 아퀴지어지니, 교육의 대모함이 여기에 있겠지

서구 자본주의자들과 다르게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은 아예 자유롭게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제 이 루어지고 있는 정치 · 사회체제 아래서는 아예 자유 와 평등에 이르를 수 없다고 봅니다. 불교는 그러므 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 경제 · 사회체제 안 에서 억지로 만들어진 모든 제도들이 더 위로 있지 않는 곳에서부터 참된 뜻에서 자유가 비롯된다고 보 에 알맞게끔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기 때문이지요. 「불교변증법」이 나오게 되는 바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구혁명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본주의 극성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은 요. 문명사적·인류사적으로 크게 뒤바뀌는 대마루 판에 올라 있는 오늘입니다. 컴퓨터와 디엔에이를 속뜻으로 하는 시대이지요. 생명의 탯자리가 어디냐 하는 골칫거리를 가지고 다퉈온 것이 사람무리가 지 나온 자취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과 주의만을 키워주며 개인의 즐거움만 누리는 것을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창조론이 그것인데, 제3의 생 명론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른바 「조작론」이 그것이 지요. 생명은 창조되거나 진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들어 내었습니다. 로봇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 낸 것이 벌써 40년 도 넘습니다.

> 컴퓨터라는 것을 찬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 대량으로 뿌려대는 문명의 이기쯤으로 받아들이

동인데, 그것은 농본주의적 생각이고 오늘 컴본주의 에 배추뿌리가 달리는 것들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컴퓨터에서 나온 인가요. 다.』 마침내는 컴퓨터라는 물건이 사람들 정신까지 를 대략복제하고 대량집적해서 대량살포하는 컴퓨 다. 불교는 이른바 종교가 아니올시다. 사람무리가 터독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옼시다. 벌써 이루 다달은 정신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니 굳이 말하자 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독재에 앙버티는 사람들이 모여「항컴동맹」 같은 동아리를 만들겠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불교철학을 한마디로 뭉뚱그 요. 그리고 컴퓨터제국주의에 앙버티는 사람만을 골 라「친컴주의자」 또는 「컴퓨터 노예」로 만들어버리 는 또다른 컴퓨터가 나올 것이구요. 이 중생이 시방 이름의 하늘 밑에 벌레들이 그 몸뚱아리와 입과 뜻 이런 이야기를 컴퓨터로 「찍어내지」 않고 이백자 원 고지에 손으로 쓰는 것도 컴퓨터제국주의에 앙버티 을 바탕으로 윤회한다는 업사상이 불교철학의 고갱 는 한 작은 몸짓이 되겠습니다.

로 하는 「유전공학」입니다. 북미합중국「나사」라는 게 아무런 뜻이 없게 되었습니다. 업이 없으므로 윤 곳에서 생명체를 만들어 낸 것이 60년대 끝 무렵 쯤 회 또한 없습니다. 윤회가 끊어진 자리가 바로 성불 됩니다. 이른바 「인조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쩔 줄 한 자리인데, 그렇다면 인조인간은 성불한 것인가 몰랐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무리가 받들어 왔던 온갖 요? 종교 · 철학 · 정치 · 사회체제며 도덕률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된 것이었지요. 이른바 가치관이라는 것 줄 수 있을 때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불교는 진리입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무리가 니다. 「컴퓨터」와 「디엔에이」 - 이 골칫거리를 놓고 지니고 있는 지적 · 도덕적 잴대로는 힘에 부친다는 뜨겁게 애태우는 스님네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것을 알게 된 인조인간 조작자들은 그것을 덮어 버 리석은 중생자리에 맞는 대답을 기다립니다. 렸답니다. 그러나 덮어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 니지요. 한 번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치이며 물건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이른바 에너지문제 해결책과 식량문 제 해결책 같은 것들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바크 샤 · 요크샤 같은 집집숭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육류를 만들어 사람무리 영양문제를 풀어 내겠다고 합니다. 오이 심은 데 콩이 나고 콩 심은 데 오이가 나는 세상입니다. 엄청나게 큰 뿌리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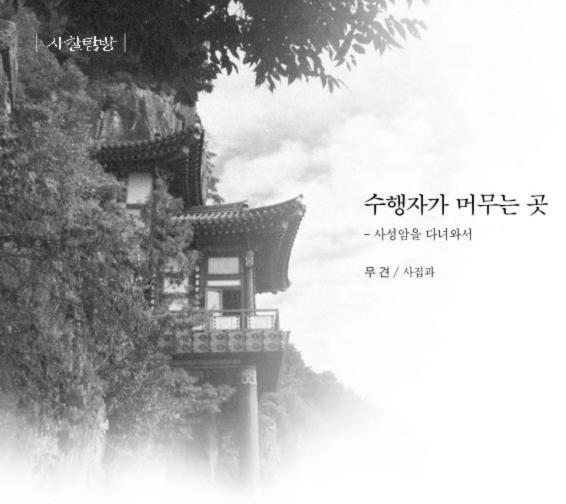
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은 모택 이며 배추잎사귀에 무우뿌리가 달리고 무우잎사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불교입니 면 철학이겠지요. 그런데 이 불교철학이 아슬아슬한 릴 수 있는 말들이 여럿 되지만, 가장 고갱이가 되는 것이 「카르마」일 것입니다. 「업」이지요. 사람이라는 으로 짓게 되는 모든 짓둥이가 모여 업이 되고 그 업 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것이 붙을 수 컴퓨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디앤에이를 속뜻으 있는 몸뚱아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업이라는

일체 중생의 일체 번뇌에 막힘없는 대꾸를 해

음남 음남 음남. @

김성동 님은 1947년 충남 보령에서 출생하였고, 1979년 "만다라,가 한국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피안의 세》 《오막살이 집 한 체》 《집》 《길》 등이 있다.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토대로 종교적인 인간의 본질문제를 주로 다루었 다



드디어 탐방이다! 경을 배우고, 고승들의 행적 을 하나하나 알아 갈수록 깨달음을 이루신 옛 선사

악(繁山庵)이었는데 깨달음을 얻은 네 분의 큰 스님 들께서 머물러 공부하신 곳이라고 해서 '四聖庵' 이 되었다고 한다.

사성암으로 가는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저 "저 위에 있다"라는 말만 의지한 채, 부분적으로 포 타불을 가르치며 글 모르는 서민들에게까지 부처님 장된 산비탈 길을 자동차로 20여 분 정도 올라야 한 다. 그 옛날엔 이 길을 정성스럽게 걸어걸어 올라왔 을텐데 ...

드디어 도착한 도량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 는 광경이 있다. 산 정상 부근에 자리 잡은 도량에서 도 하늘을 봐야 만나게 되는 약사전, 높은 암벽에 살 포시 얹어놓은 것처럼 아슬아슬한 전각은 금강산의

보덕암과 그 구조가 닮았다고 한다. 까마득히 높은 기둥 위에 걸터앉은 것이 아찔해 보이면서도 절벽이 들의 자취를 읽고 듣는 것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 약사전을 꼭 끌어안고 있는 듯 너무도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마치 절벽과 하나인 듯. 아주 극단적 사성암(四聖庵)은 오산(鰲山)에 있어서 오산 인 모습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 그리고 법당 안 암벽엔 원효스님께서 선정삼매 에 들어서 손톱으로 그리셨다고 전해지는 약사여래 불이 있었다. 원효스님은 어떤 원력으로 이 높은 곳 에 약사여래부처님을 그려 모셨을까? 아마도 저자 거리를 다니시면서 무애가를 지어 부르고 나무아미 의 이름을 듣고 믿게 하셨던 그 자비로움이 이 높은 곳까지도 예외 없이 전해진 것이 틀림없으리라.

> 약사전을 내려와서 우리는 원효스님께서 참선 하셨다는 좌선대에 올라가 볼 수 있었다. 아래에서 올려다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올라서 보니 좌복 을 깔아놓은 것처럼 평평한 바위였다. 마치 바위가

자리를 마련해 두고 원효스님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 도량에서 공부하신 여러 스님들의 법력 덕분이라고 처럼, 섬진강이 발아래 굽이쳐 흐르고, 한 쪽으로는 하신다. 이 맑고 청량한 기운을 후대에게 그대로 전 산 건너 화엄사까지 펼쳐진 평야와 다른 한 쪽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산다며 엷은 미소를 건 는 너무도 보기 좋은 능선들이 멋스럽게 너울거린 네신다. 다 백운산 자락이 끝나는 곳에 오산이 솟아올라 남 해바다의 기우이 산능선을 따라 전해지는 이곳 사 우리들에게 사성악에서 살며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성암 스님들께선 이른 아침 좌복 하나 들고 올라와 서 앉곤 하시는데, 그 순간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 다고 하신다. 그다지 높은 산도 아닌데 올라와 보니 신기할 만큼 높고, 사방이 온통 바위다.

高嶽峨巖 智人所居 碧松深谷 行者所棲 飢餐木果 慰其飢腸 渴飲流水 息其渴情

높은 산 험준한 바위는 지혜 있는 사람의 거처요. 푸른 소나무 깊은 계곡은 수행자가 머물 곳이라. 배 고프면 나무열매로 주린 창자를 위로하고. 목 마르면 흐르는 물로 목마른 생각을 쉽지니라.

원효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수행자가 머무를 곳과 살아가는 방법을 이와 같이 일러주셨는데 이곳 가지 마즛물이 되기를 간접히 밤원해본다 急 에 와보니 과연 옛 성인들은 이처럼 수행하셨구나 싶었다.

좌선대에서 바라보면 맞은편에 더 높이 솟은 바 위가 있는데 그곳이 연좌대이다. 이 연좌대에 대해 원감국사문집에서는 "사성암이 있는 오산정상에 참 선하기에 알맞은 바위가 있는데 도선, 진각 양 국사 가 연좌 수도했던 곳이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좌선대를 내려와서 정겨운 돌답길을 따라 가다 가 좁은 입구를 조심스레 통과하면 한 사람 앉기에 딱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곳이 도선굴이다. 좌선대 와 연좌대가 사방이 막힘없이 트인 곳인 반면에, 도 선굴은 꽉 막힌 곳이라니, 큰스님들께서 공부하신 너무도 다른 장소이지만 이 가슴 벅참은 어떤 말로 도 표현할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 주지스님은 연기조사가 창건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터가 남아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음덕과 이

서서히 발걸음을 옮겨 '하계(下界)' 를 향하는 다 꺼내놓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시며 말씀하신 다. 사성암의 밤과 새벽의 풍경은 더욱 아름답다고. 도량석을 돌다보면 그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 시간가 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서 있게 된다고 ...

전각과 풍경뿐 아니라 머무르고 계시는 스님들 도 참 아름다운 곳, 사성암을 내려오면서 우리의 수 행이 어떠한 서원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 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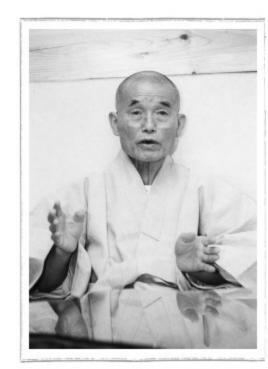
언젠가 '마중물' 이라는 시를 들은 적이 있다. 한 바가지 물을 먼저 윗구멍에 붓고 부지런히 뿜어 대면 그 물이 땅 속 깊이 마중나가 큰물을 데리고 온 다는 뜻의 마중물, 부처님께서 그러하셨고 큰스님들 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사바세계에 한 바



공부하다 죽어라

- 혜암 큰스님 -

자 경 / 사미니과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어 디로 가야 하는가….'

어린 시절부터 점점 커져갔던 의구심은 삶과 죽음이라는 화두로 나를 방황하게 했다. 그러던 중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쌓 을 수 있는 만남이 있었는

데 템플스테이를 통한 산사에서의 하루였다. 해인사 산내암자 순례 중, 원당암 미소굴 입구에 새겨진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글귀을 본 순간, 그동안 내 가 애타게 찾던 답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공부하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옳은 마음으로 옳은 일 하다가 죽으면 안 죽어요." 이 세상 난 것

도 죽는 것도 살아가는 것 도 오직 하나, 공부하는 것뿐. 공부하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조계종 10대 종정 혜 암 큰스님은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일본에 서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일휴선사 모친의 유언서』에 감화를 받고 『선관 책진』을 읽다가 발심했다. 이듬해 해인사로 출가하 여 인곡스님을 은사로, 효봉스님을 계사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출가일부터 45하안거를 성만하기까 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종식(一種食)과 장좌불와 (長坐不臥)의 대분심으로 용맹정진하는 정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어느날 밥을 푸다가 백련암 뒤편 환적대로 올라 갔다. 바위굴에서 "일주일 안에 道를 깨치지 못하면 죽어도 좋다."는 결연한 각오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일주일간 삼매에 들었다. 그로부터 스님은 '공 부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제방선원에서 당대의 선지식인 한암, 효봉, 동산, 경봉, 전강선사를 제방 선원에서 모시며 그 정진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수많은 두타고행의 일화 중 정신이 번쩍나게 나 의 해태심을 꾸짖는 오대산 영감사 토굴에서의 용 맹정진! 이 토굴에서 스님은 '공부하다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불을 때지 않고 오직 잣 잎과 생콩 10알만으로 정진하여 수마를 완 전히 항복받아 4개월 동안 한순간도 혼침에 빠지지 않고 수면이란 본래 없는 것임을 알게 된 후 선정삼 매 속에 몰록 心眼이 열렸다. 스님은 법문 중에도 "불법은 大道無門이라고 한다. 문이 없는 것으로 법 문을 삼으라는 말이다. 일체 모든 법이 없어지지 않 으니 모든 부처님이 항상 어느 곳에든 나타난다. 문 없는 문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수행자나 재가불자 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시며 승속을 초월한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禪의 대중화, 생활화 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 니 진실되게 살고 자신을 속이지 말며 모든 것을 뒤 로 미루지 않고 실천하라."를 강조하며 매순간 몸소 爲法忘軀의 모습으로 참선수행에 몰두하셨던 진정 한 선숭(禪僧)이었다.

종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스님께서는 산에 계시다 세상으로 나오셨다. 평소 '가야산 대쪽'이라 불릴 정도로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여 당시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조계종 개혁불사와 1998년 조계종 종단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한국 불교계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어느 때보다 사표(師表)가 절실한 지금, 이 시

대의 고통에 대한 큰스님의 차디 찬 죽비의 경책이 간절해진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에 애쓰셨고 일생 을 청정한 계행과 철저한 두타행으로 수행하신 스 님은 하늘과 땅이 분별없이 모두 하얗게 하나가 되 는 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잘해라."고 당부하신 후 열반에 드셨다. 세수82세, 법랍은 56년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이 내리면, 큰스님의 자비심도 눈이 되어 우리에게 다 가올 것 같다. 해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 는 이맘때 쯤이면 나도 모르게 초발심 했을 때의 그 서원을 다시금 되뇌이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 주고, 빈틈없는 강원생활 속에서 힘들어 지치려할 때 마다 떠오르는 큰스 님…

이러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퇴굴심을 내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게 된다. 앞 으로 내가 처할 곳이 법당이든 선방이든 포교를 하 는 어느 곳이든 부처님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정 진하는 것이 위법망구의 철저한 수행을 했던 큰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衛



쥴레, 라다크!

수인 / 사교과

₩ 나의 새로운 희망 다람살라!

불교수행은 무엇보다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귀의와 스승에 의한 철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신념이었다. 강원에 입학하여 익숙하지 않은 치문생활에서 몰려오는 육체적인 고단함은 오히려 참을만했다. 하지만 제자에게 올바른 안목과길을 제시해주시는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목숨 걸고 따르며 의지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수행살이와는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강원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마음 한 구석에 자라고 있었다.

이른바 목소리 큰 사람의 논리가 또는 귀동냥 으로 보고들은 것들이 어느덧 '대중' 이라는 큰 허 울을 쓴 무서운 잣대가 되어 아무런 의식 없이 익숙 해지는 것이 그 어떤 걱정자리보다 두렵고 벗어나 고 싶었다. 나는 그렇게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스승 에 대한 갈증으로 봄과 여름 두 칠을 보내고 있었 다.

그해 여름방학, 나는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던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다람살라법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존자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지만 그곳의 수행 환경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나를 더 흥분시켰다. 비록 여행사의 일정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모두 보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탄탄한 커리큘럼과 스승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여기며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많은 위안이 되었다. 졸업하면 반드시 이곳에 와서 공부하리



라는 굳은 다짐을 안고 강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꿈속의 수행처

2008년 사교 여름방학, 라다크 순례차 다시 다 람살라를 방문하였다. 이번 일정은 지난번과는 달 리 여유가 있어서 텐진빨모의 근본스승으로 더 잘 알려진 9대 캄물린포체와 독댄 등 많은 큰스님들이 주석하고 계시는 따시종과 17대 까르마파존자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규도사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내 가 그렇게 염원하고 발원했던 스승, 선지식과의 만 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극한 우러름과 충만한 기쁨의 모습의 내 머 릿속 스케치와는 달리, 접견실의 문이 열리자 진공 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발이 허공에 떠있는 것처 럼 멍멍한 상태로 얼떨결에 한국식으로 삼배를 올 렀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이상하게 머리가 어지럽 고 온 몸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금방이라도 그 자리 에서 털썩 주저앉을 것같이 정신이 몽롱해졌다. 아 무리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도 그분들의 인자한 모 습과 자애로운 말씀은 나의 눈과 귓전을 맴돌며 허 공 속으로 퍼져 메아리로 다가올 뿐이었다.

그렇게 예상에서 빗나가버린 친견을 마치고 나 오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억수같은 비가 갑자 기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미끄러질 듯 질퍽한 길 을 15분 가량 걸어 뭔가 특별할 것 같았던 수행처, 나의 이상향이었던 따시종의 무문관에 도착했다.



▲규또사원



▲좀쿨사원의 사미들

추녀 끝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곧바로 무너질 듯 허름하게 서 있는 판자집 한 채엔 높게 만들어진 단에 모셔진 부처님과 나무침대 하나, 기본적인 취 사도구와 소량의 식량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곳에 와서 수행하시는 한국스님 한 분이 전부였다.

나의 이상향이었던 '~일 것 같은 수행처'에 막상 와 보니 이곳은 모든 것을 몸으로 직접 부딪치고 처절하게 인내하며 수행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수행처'였다. 움직임 없이 부조리한 생활만 탓하며 편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지고 그 달콤함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시비분별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내 모습에 쓴웃음이 나왔다. 모든 것은 내관념이 만들어낸 '꿈' 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화엄반이 되고 강원만 졸업하면 무엇인가 이 답답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문이 있을 것이라고, 언 제 올지 모를 미래로 위안을 삼았던 나, 그러나 이 젠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특별한 수행처도 스승도 없다는 것을 안다. 수행은 기약함이 없는 실제이기 때문 에….

₩ 쥴레~ 라다크!

다람살라에서 라다크의 레로 가는 길은 정말 만만하지 않았다. 해발 4000~5000m의 힘준한 산 들과 비포장도로, 폐차 직전의 인도산 지프차 그리



▲누브라밸리

고 고산증으로 인해, 우리는 라닥에 도착하기도 전 에 지쳐나가 떨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은 우리 의 지친 노고를 풀어주기에 충분했고 그곳의 스님 다 들께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절로 그야말로 입을 덜기 위해 출가를 해서 죽을 때 렇게 꼬박 3일을 달려 우리를 반겨주는 '즄레' (라다 크의 인사말로 감사의 표현으로도 쓰임)라는 큰 이 정표가 있는 레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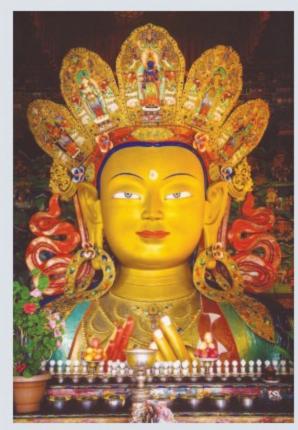
호연지기를 품게 하는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과 라닥 산맥 푸른 오아시스와 삭막한 사막이 공존하 는 여기는 해발 3500m로 사람이 사는 곳 중에서 가 장 높은 곳이다. 1년 강수량이 100mm가 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고 겨울에는 영하 20℃를 넘는 혹한 과 폭설로 인해 라다크로 넘어오는 모든 길이 차단 되어 오직 여름 3달에만 길이 열린다고 한다. 우리 가 도착했던 8월 초는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 후라 거리는 비교적 한산하였다.

우선 레의 절 사무소에 개인집과 공양물 등을 내려놓고 레 주변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동차 길인 칸둥라(5600m)를 넘어야 갈 수 있는 누브라밸리와 깊은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어 눈이 내린 겨울에는 길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계곡의 빙 판길을 따라 동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4~5일을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쟌스카 등을 위시해서 그 주 변의 여러 절들을 순례하기 시작했다.

₩ 삼보의 가피로…

아름답고 웅장한 미륵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틱 세곰빠, 구루 린포체(파드마 삼바바)로 유명한 헤미 스 3년 3개월 3일을 빛을 가리고 폐관수행을 하는 괴창 박구라 린포체의 양시(아직 정식으로 인가반 기 전인 환생한 어린 라마)와의 만남과 잊지 못할 살구밭에서의 하룻밤을 보낸 쌈뗸링, 사원에 들어 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경탄을 금치 못했던 1000년 전의 불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알치. 'Moon Land 라고 불리는 신비의 왕국 라마유르. 밀라레빠 의 스승인 나로빠가 도를 성취하셨던 종쿨사원 등 많은 사원과 스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

그곳의 스님들은 10살 전후의 나이에 집주변의 까지 그 절에서 떠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틱세공빠



▲누브라밸리 보리받

간단했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공양금이 나 소입비라는 것은 없었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신 도들이 원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면 받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000원 정도의 보시금이 전부였다. 그렇기에 사중의 물건과 시주물을 어찌나 아끼는지 히 순례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 조그만 것이라도 그냥 가져다가 쓰는 법이 없었다.

많은 스님들이 우르르 나오셨다. 오신 분들 중에는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느 사미스님 은 그 흔한 연고가 없어서 괄 전체에 상처가 가득했 있었다. 경전을 독송하고 염불하는 것을 생활의 전 부로 살아오신 노스님들은 돋보기가 없어서 경전을 쏫아나게 하소서!"(\$ 보지 못하셨고. 갖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스님들은 진통제 없이 그냥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했다. '골고루 많이 먹고 씩씩하게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영양실조라니, 또 노스님들은 얼마나 답답하 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짠했다. 미리 준비해 간 약과 공양물 등을 나누어 드리는 내내 주변의 환경 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시 해왔던 나의 행동 과 모습들이 부끄러웠다. 또 남을 위한다는 것을 어 럽고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너 와 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임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공양물을 받아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했다.

우리의 청결 상태와 비교했을 때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불결한 주변상태에서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 로 지내는 그곳의 사람들을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 한 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삼보의 가피 때문"이라고.

이번 라다크 순례는 좀 더 특별하고 거창한 꿈 을 꾸려는 나에게 본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집착하 고 끊임없이 또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내 인 식 속의 에고에 대한 자각과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 와 행복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걸 온몸 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많은 우려와 걱정과는 달리 너무 건강하고 무사 고 나에게 수행에 대해 다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사원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자마자 정말 주신 스승님께 부처님의 자비로 언제나 행복하고 건 강하길 두 손 모아 발원해 본다.

> "중생의 본질은 언제나 부처이나 이를 깨닫지 있는 줏생들을 향해 무량한 자비심이 우리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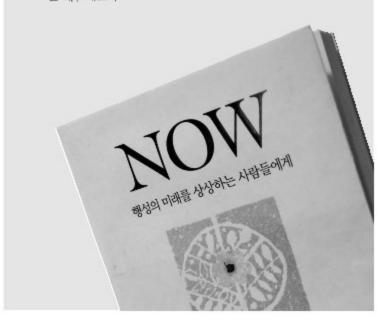


▲까르샤 곱빠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

에크하르트 톨레의 『NOW』를 읽고

원재 / 대교과



꽃이나 수정과 같은 보석을 왜 아름답다고 생각 할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 지기 때문일까? 그리고 왜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가지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혹은 여러 가지의 보석으로 장엄된 것일까?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책 'NOW: 행성의 미래 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에 의하면, 꽃은 풀과 나무 들이 진화한 상태 중에서 최고의 상태인 식물의 깨 달음이고, 수정 등의 보석은 돌의 깨달음이라고 말 한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인간 본질 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속성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했 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형상' 올 초월한 부분이 형상화된 것을 상징 한다고 말한다.

톨레의 이 말을 이해하면 부처 님의 세계가 왜 꽃이나 보석으로 장엄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영 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동서와 고금을 가로질러서 스스로 빛나는 분들의 그 놀라운 통찰이란!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로 자신과 그것을 둘 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 이 책 "NOW』는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 와 무상, 고(苦)와 공(空), 연기법 등의 내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 다.

이 책은 특히 '영적인 깨어남' 이라고 표현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 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에고, 즉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상(我相)' 에 대한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다.

깨어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야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다. 곧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에고를 일이차리는 일이다. 또한 그 깨어 있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만드는, 집단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에고는 형상을 자신이라고 믿는 것. 그 이상이 아니다'고 톨레는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상' 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함께 흔히 정신적 인 것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모든 작용이 포함된다.

그 자체가 에고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은 내용물과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고가 생겨나는 마음의 기본구조 중 하나는 '자기 동일시' 다.

반복적이고 초점이 없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을 자 신과 완전히 동일시한다. 이 생각의 흐름을 제외하 면 그리고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들을 제외하 면 거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톨레는 이 책을 통해서 '나'라고 믿는 에고가 만들어낸 헛된 자기 이미지를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 다시 말해서 외부의 물질적인 형 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내용물과 구조라고 할 수 있 는 내면의 형상물이 사라져서 그 내용물을 담고 있 는 공간, 즉 텅 비어 있는 내면공간 자체를 자각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형상에 빠져 있다.

인류가 집단적으로 앓고 있는 병은 사람들이 눈. 앞에서 일어나는 것에 너무 몰두하고, 변화하는 형 상들에 너무 최연당하고, 그들 삶의 내용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내용물 너머, 형성 너머, 생각 너머. 에 있는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형상으로서의 자신을 강조하려고 노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톨레는 말한다.

것, 인정을 얻어내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기분이 달 라지는 것. (…)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그 사람 지체보다도 더 신청 쏘는 것. (…) 소유율이 가 보잘 것 없음, 알팍함, 여전히 아상(我相)으로 가 나 지식이나 잘챙긴 외토니 시회적 지위 또는 육체적 등찬 것을 보는 순간이다. 인 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어디자를 산 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무엇인가 뜨는 누군기에 대한 분노에 찬 반응을 통해 일시적으로 에고를 부풀리는 7J. (···)무익한 정신적 언어적 불평을 늘어놓음으로 써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게 만드는 것, 중 요한 시락으로 보이거나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이러한 에고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습 그대로 ﴿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 샛각의 흐름을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나' 라고 동일시한 에고의 모 습이었다

>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에고와 무 거운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것으로 야기되었던 많은 일과 잦은 부딪친과 불편 한 관계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이나 부 딪침은 같은 정도의 강한 에고의 부딪침이라는 생각 이 든다. 에고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부풀리기 위 한 몸부림이라고 해야 할까? 그 속에서 거울 같이 나를 비춰주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다. 에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 든데 에고가 무너지는 고통은 얼마나 힘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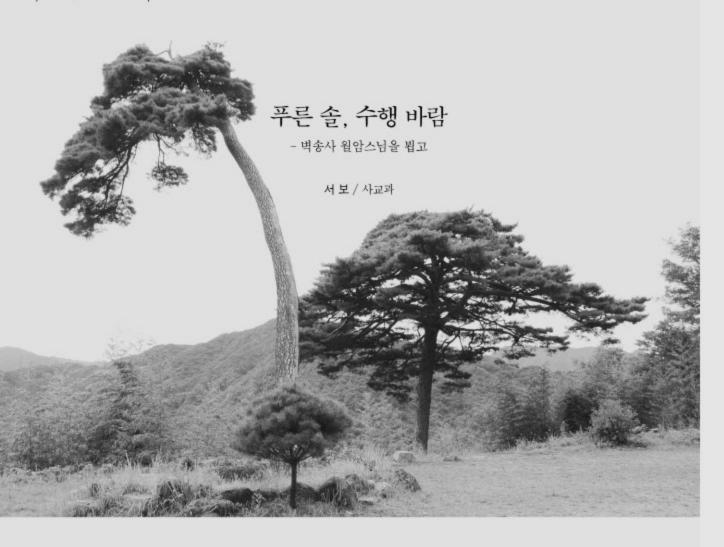
> 그때의 말과 행동,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감정 은 그때의 감정일 뿐이다. 그것 또한 항상 지나간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감정에 매달러서 상대방을 대하 곤 한다. 그것이 집착일 것이다.

강원에서 4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얼마나 편 안하고 여유로워졌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 나 관대하고 자비로운가, 그리고 평등심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냥 얼굴이 붉어지 고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법(法)다운 고결한 마음과 숭고한 감정, 남을 탓하고 험담하고 난 후 후회하고 참회하고는 다시 자신이 향한 무엇인기에 대해 인정을 요구하는 - 되풀이하고 있는 내 중생스러움의 가벼움이 여전히 서로 교차하는 것을 본다. 습관, 무시겁래로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그 습기(習氣)들, 내 수행의 살림살이

> 그런 나에게 위안과 함께 희망이 있다면 이 마 음 또한 지나간다는 것과, 가장 무거운 고통체나 강 한 에고를 가진 사람이 먼저 그 에고를 자각할 수 있 고, 그 강한 에고의 중력을 뚫고 비상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많다는 믿음이다.

이제 침묵할 시간이다. 다시 내 안으로, 고요함 으로 눈을 돌린다. 나는 늘 그 자리다. 언제나 그 모



"운문사는 대중이 얼마나 되요?.. 아, 날마다 환희롭겠네.(방긋이 웃으신다.) 날마다 층층시하에 죽을 지경이지 뭐. 강원에 있을 때는 빨리 졸업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들 그립다하데. 대중에서 공심(公心)으로 산다할 때 공심은 공사(公私)할 때의 공(公)이겠지만, 실제로는 빌공(空)자의 공, 허공심이 공심이죠. 네 거 내 거가없다, 너ㆍ나가 없잖아요. 저 허공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잖아요. 일체를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허공심으로 공심을 삼아야 해요.

형상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다 아니여. 바다는 가장 낮은 자세로 있기 때문에 일체 천강 만강의 물을 다 받아들여서 해인삼배로 출렁거리고 있지 않냔 말이요. 형상 없는 것 중에 젤 큰 것이 허공이거든. 허공은 자신을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허공이에요. 허공이 자신을 안 비워버리면물건이 되지 허공이 될 수 없잖아요. 이렇듯 바다가되는 것은 下心이 되고, 허공이 되는 것은 공심이되는 거에요."

사교 겨울, 또 일 년이 지나고 있다. 살면서 숱하게 그랬지만 또 '벌써' 란 단어가 튀어나온다. 그리고 '빠르다' 는 말도. 뭐가 뭔지 모를 대중생활이다. 발을 들여놓았다. 뺐다 하듯 이 대중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얼마나 허공과 닮아 있는지 모를 일이다. 때론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고, 때론 제법 허공과 바다 같이 되기도 하지만 수행자라면 그래, 항상 마땅히 여여(如如)할지어다!

얼마전 벽송선원(碧松禪院)에서는 '선회(禪 會)' 라는 특별한 산철결제가 있었고, 선원장 스님 을 뵈러 가는 오늘이 선회의 회향일이다. 벽송사를 찾는 가과른 길에 막 선회를 회향하고 길을 내려오 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단청을 미룬 벽송사 전경은 말쑥하다. 지난해까지 불사중 이었다고 했다. 좌우로 지리산 산줄기뿐이다. 이런 산중에 100여 분 스님들의 산철결제라….

기골이 장대하신 스님이다. 인사드리고 자리를 마주헸지만, 무슨 말로 서두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 다. 묵묵히 달여 주시는 차를 받아 마셨는데, 스님 께서도 모르는 달디 단 차다.

"원 차인지 대개 다노?… 몸에 좋은 거겠지 뭐." 단내를 맡은 벌이 주변을 웽웽거린다.

"뭘 물어보러 왔는지 보따리 좀 한번 내봐요." "..."

입안에서 차 맛의 단 여운이 가시도록 앉아 있 었다. 뭔가 어렵고 조심스럽다.

"햇중이요, 그래? 새중이라 좋겠네..."

"저희는 스님 말씀대로 초학자이고, 앞으로 선 방에 가거나, 선을 공부할 학인입니다. 현재 강원에 서 一代時敎를 보는 과정에 있는 저희들에게 도움 이 될 만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스님은 마시던 찻잔을 잠시 동안 바라보시다가 운을 띄우신다.

"우리 조계종이 종명(宗名)으로 봤을 때 분명 히 육조혜능 스님의 선사상을 계승하고 있으니 선 종의 종지가 굉장히 깊게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죠.

1520년(조선 중종)에 벽송사를 창건한 벽송지엄 스님이 당시 후학들을 위한 접인방편으로 "도서』 와 "절요,로써 지견을 분명히 하고, "선요,와 "서 장』으로 그 지견마저 떨쳐버리고 본분사를 깨우 치게 하는 그런 지도방편을 제시하셨단 말이여. 그게 현재 강원 교육의 연원이여, 강원에서 교학 을 연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학이고, 또 우리가 선원에서 실질적으로 실참(實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참은 교학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여. 그걸 우리는 선교 경수(禪敎兼修)라 해요. 벽송사에서 108분이나 되는 많은 콘스님들이 행회(行化)하셨는데 그분 들이 강주스님이자 조실스님이었거든, 선교에 정 통하신 분들이라. 벽송스님이 그렇게 했던 것이 교를 공부하고, 교를 의지해서 선을 깨닫게 하는 의교오선(依敎悟禪)의 지도방편이거든, 사교입 선(捨敎入禪)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사교입 선이란 교를 배우고 교로써 여실지견을 세우되.



그 지견마저 떨쳐버리고 선에 들어서 근본 종지인 때니 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 수행 살 본부사, 생사대사를 깨치게 하는 것인데, 요즘 사 - 립살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 람들이 사교입선을 잘못 이해해서 교를 공부하지 않고 바로 참선을 해야 한다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 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따로 교따로가 아니 란 말이지, 벽송스님이 『도서』, 『절요』, 『서장』, 『선 요.를 공부하게 한 뜻은 교학적인 바탕으로 참선 을 해서 마음을 깨우치는 선교겸수의 가풍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힘이 있으시다. 선교겸수의 수행 풍토 정착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 듯 했다

선회도 회향하시게 된 거죠?"

말하면 강원교육이 깊이 있는 교학의 연찬이 못되 (緇門) 인데, 말 그대로 치문은 공문(空門)이요. 었단 말이지, 이력(履歷)을 마친다는 것에 초점이 _ 불문(佛門)이거든, 물들일 치(緇)자인데, 보통 맞춰져 있으니까. 교학에 대한 미진한을 갖고 선방 에 왔다 맘이야. 그래서 산첩에 선회를 통해서 큰 이 부처님의 교서로 말하면 연기요. 공이요. 무야 스님들을 청해 경전과 선어록을 실참의 입장에서 가든. 그리고 대승불교식으로 말하면 중도란 말이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고요. 선회는 실참을 하면서 교학적인 바탕을 굳건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니 선 에, 불문에 든다고 하는 것은 연기, 공, 무아의 사 교를 아우르는 좋은 수행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상으로 인식을 전환한다는 것이죠. 강원에서 여러 이런 재충전을 통해서 세상과 후학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 놓을 수 있는 수행풍토를 만들어야 해 하는 정견을 확립하는 것이죠" 요 전문용어로 그걸 응기전물(應機接物), 응기전 인(應機接人)이라 하는데, 그것이 조사스님의 가 풍이거든, 자기 수행에서 얻어진 것을 중생에게 회 향하고 후배를 위해 회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병 행해 나가야죠. 우리 선배들이 열린 광장을 만들어 서 후배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도 풍토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 삼림살이가 단 단하면 우릴 어떻게 깔보겠어요. 존경하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빈약하니까 종교편향이니 어 본교육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거죠. 이

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겠죠."

무슨 물음이든 구하는 답은 같다. 수행자이고, 수행하는 수 밖에. 선회는 그런 수행자들이 택한 수행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부는? 지금 강원이라는 과 정에서의 수행이란 무엇일까?

"강원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정견(正見)을 확 립하는 단계로 불교적 인생관, 철학관, 수행관을 "교와 선을 같이 하는 풍토를 만드시려고 오늘 |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에요, 지금까지 중생의 업력 으로 살아온 삶을 떨쳐 버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정관 - 연기론에 입각해서 행동할 것 -을 확립 "선방스님들이 안거동안에 실참(實參)만 하 - 하는 기간이죠. 앞에서 얘기한 조선시대 강원에서 잖아요. 강원에서 교학을 했다고 하지만 다 깨놓고 __ 중요하게 여기던 그 네 과목에 추가된 것이 『치문 '중물 등인다'는 것이 뭐냔 말이여, 중물이라는 것 여, 중도, 중도 정관이죠. 결국엔 치문에 들고 공문 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도정관이라고

> "저희는 아직 중도정관(中道正觀)이란 말이 관 념적이고 어렵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중도정관 이라는 정견을 갖출 수 있을까요?

"연기론적인 사고, 중도정관에 입각한 중도무 록 노력해야겠죠. 이제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이행, 이제 정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 립을 해야 하겠는가... 나는 이걸 강원에서, 기본교 육기관에서 확립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

데... 어떻게든 교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 되는 말이에요." S."

현 교육체제 안에서, 강원의 테두리 안에서 실 구나 기꺼이 스스로 짐을 진다. 제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수동적 인 학인의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수행자. 그 구 기다리는 것도 아닌 지금을 위함이다. 성원이 되어 보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변화의 바람은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지금, 여기에서, 위해 우린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우리 수행자는 말이야 두 글자를 가슴에, 이 마에 불이고 살아야 돼. 하나는 간절 절(切)자야. 간절하게 사무치는 마음이 없으면 중노릇을 해도 별 영험이 없어. 간절 切자를 이마에 불이고 살아 야 돼, 또 하나는 죽을 사(死)자야, 죽을 死자를 갖 다가 가슴에 걸고 다니든지 묶고 다니든지 그래야 돼. 출가하는 그날부터 중생 아무개는 없어. 죽었 어, 내가 죽었다는 마음이 되어 버리면 경계에도 덜 끄달리는 거야, 펄펄 살아있다는 청춘의 마음이 있으니까 경계에 끄달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 아가도 경계에 부딪치고 잘 안된단 말이에요. 천억 만년을 중생으로 살아왔는데 부처가 되겠다고 유 턴을 했잖아요. 자기 본심, 자기 본분사를 밝히는 일이 어디 쉽겠냐고. 밑 빠진 배를 노저어 강을 역 류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생의 업력은 폭포수와 같은데, 폭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그러니까 자꾸 공심을, 하심을 돌이켜서 천만번 태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초교과목을 통해서 자 어나더라도 다시 수행자가 되겠다는 단단한 원력 연스럽게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을 세우고, 다시는 주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요. 그런 부분에서 강원교과목을 떠나서 달리 뭔가 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노릇이 조금 수월하겠 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 지, 우린 생사문제, 우주의 기본적인 문제에 딱 작 러부들이 좀 건의를 하세요. 그런 교육을 하도록. 면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우주적인 마음으로 살아. 실제로 나도 조계종도의 선배로서 고민하고 있는 이 해. 수행자는 당당해야 해요. 당당과 교만은 달 거예요. 다년간의 훈습(惠習), 그야말로 이슬안개 라요. 수행과 교화에 한 점 부끄럼 없을때 당당하 에 옷이 젖는 것처럼 4~5년 동안 나도 모르게 훈 지 않겠어요? 그게 공심이에요. 내가 그러죠. 낮추 습되어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고, 중 고 낮추어서 바다가 되고, 비우고 비워서 허공이 도다 하고 자연스럽게 확립되고 습득되어야 되는 되자고, 이건 실제로 대중에 사는 스님에게 해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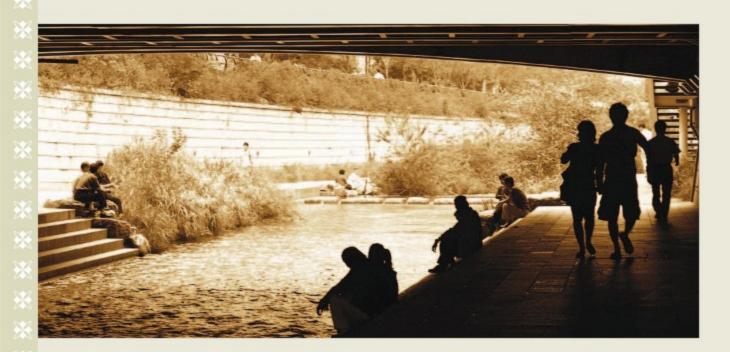
추위에 맞서 입은 여러 겹의 옷 무게만큼은 누

내부엔 그만한 열기를 품고서, 이 열기는 봄을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

고 은 주 / 소설가



으레 한 곳에서 멈춘다. 지하철 종각역과 을지로입 구역 사이의 광교 사거리, 그곳은 광교라는 이름 그 대로 넓은 다리를 이루고 있다. 차들이 분주히 오가 는 넓은 차도와 사람들을 위한 좁은 인도가 있고 그 선 초기, 경복궁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큰길이 아래로는 복원된 청계천이 흐르는

청계천이 복원된 이후로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의 물길을 다시 연결시켜 옛날 처럼 자연스러운 물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강에서 끌어올린 물을 인공적으로 흘려 보내고 있지만 옛 모습을 원형에 가깝게 되살리는 복원이 아니라 그저

종로의 대형 서점을 찾을 때마다 내 발걸음은 요란한 인공 조경으로 국적 불명의 현대식 하천 공 원을 새로 만든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어색한 풍경에도 이제는 어지간히 익숙해졌다.

> 그러나 광교에 서는 마음은 늘 새삼스럽다. 조 청계천과 만나던 그곳의 이름은 광통방이었고 거기 에는 광통교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현대 식 광교가 들어서 있고, 광통교는 155미터 서쪽으 로 옮겨져서 복원되었다. 그러한 분열적인 풍경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한 상징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20개가 넘는 청계천의 다리들 중에 유

지… 현대식 광교의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서쪽의 광 엇갈린다. 현재에 몸을 의지한 채 과거를 바라보는 순간. 새로 지은 콘크리트 다리 위에서 600년 묵은 이방원의 분노를 가늠해 보면서……. 돌 다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시작되는 광장의 조형물을, 그리고 그 너머에 펼 것만 같다. 계단 아래 본래 광통교가 있던 축대를 지 나쳐 나는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한다. 개천의 물 길을 거슬러 걸어갈수록 광통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돌과 새 돌이 뒤섞여 색깔 차이가 선명한 난간석, 그 리고 다리 아래로 가까이 다가가면 손으로 쓰다듬을 수 있는 신장석…….

광통교 석축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신장석은 원래 신덕왕후 무덤의 병풍석이었다. 화엄신장을 둘 러싼 신비한 구름무늬와 그 아래 단아한 덩굴무늬를 아로새긴 열두 개의 돌은 태조 이성계가 계비에 대 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계모에 대한 미울과 두려움에 그 돌들을 뽑아 뭇사람들이 짓밟는 다리로 만들었

청계천이 콘크리트 도로로 덮이자 신장석은 암 혹 속의 하수구에 잠겨버리는 수모까지 겪었다. 그 래서 다시 햇빛을 보게 된 지금도 아랫부분이 검게

일하게 원형 그대로 복원되었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 변해 있다. 하지만 세월의 얼룩을 그대로 지니고도 신장석은 여전히 아름다워서 나는 매번 넋을 잃고 통교를 바라보는 순간에는 그래서 늘 여러 마음이 돌에 새겨진 무늬들을 바라본다. 600년을 굳건히 버텨온 광통교에 깃든 태조 이성계의 사랑과 태종

이윽고 광통교 옆으로 난 물길을 따라 청계광장 이윽고 광통교 너머 모전교를, 그 너머 청계천 으로 향하다 보면 영조 때의 호안석축이 길게 박혀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오래된 돌은 마치 보석처럼 내 쳐진 빌딩 숲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나는 종종 개천 눈에 쏙쏙 들어온다. 그 옛날 정성을 다해 쌓았던 호 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는다. 아주 오래된 돌이, 기 안석축이 시멘트 옹벽의 장식품으로 전략한 모습을 나긴 세월을 끌어안은 돌이, 그곳에서 나를 부르는 바라보고 있노라면 복원이라는 단어는 또다시 무색 해진다. 복원될 수 없는 것과 복원되어야만 하는 것 들이 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키는 순간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그곳에 가야겠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다리, 시간과 시 검푸른 물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교각, 오래된 간을 이어주는 다리, 오랜 시간을 담고 있는 그 다리 로 향해야겠다.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간에, 600년을 굳건히 버텨온 광통교에 서 보아 야겠다

촛불이 꺼진 그 광장에는 어쩌면 연말 연시의 화려한 빛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할 수 없 는 것의 맞버팀을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목격할 수 한 사랑을 담아 당대 최고의 석공을 동원해 만든 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곳으로 향해야 한 다. 이제, 기나긴 시간과 찰나의 시간을 번갈아 곱씹 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으므로 🏂

고은주 넘은 1967년 부산 출생,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1995년 '문학사상 신인상' 으로 등단, 1999년 '오늘의 작가상' 수상, 소설집 '칵테일 슈가', 장편소설 '아름다운 여름', '여자의 계절', '현기증', '유리바다', '신들의 황혼', '시간의 다리' 출간,

채공간 풍경

-또 하나의 수행 공간-

편집부



우주의 에너지가 최고에 이른다는 새벽 3시. 도량석 목탁소리가 운문사를 깨운다. 대중스님은 물론 온 도량의 유정무정을 깨우는 이 신호와 함 께 후원 한 켠, 작은 탁자 위에도 촛불이 켜진다. 공양주 스님이 지성으로 향을 올리고 맑은 감로 수로 공양을 올리는 곳, 부뚜막 위에 있는 조왕 단이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여염집 부엌을 관 장하던 조왕할아버지가 여태껏 절집에서 스님

들의 시봉(侍奉)을 받고 있으니, 무슨 조화일까? 불교가 발길 닿는

곳마다의 토속신앙을 배척하지 않은 원융의 흔적인 것이다. 그 절집의 대중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곳. 비록 장소가 좁아 절은 할 수 없으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오로지 대중을 시봉하는 마음으로 머리 조아려 반배라도 올리고 지나가야 마음이 편한 곳. 이는 단순한 미신이라고 하기 보다는 크고 작은 사고 가 일어나기 쉬운 공간에서 스스로의 행동에 잠시 쉼표를 찍어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한 집안의 살림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곳이 부엌이다. 밥을 짓는 공양간 과 국을 끓이는 채공간으로 나뉘어진 절집의 부엌인 후원에도 가스렌지며 조리대가 있다. 그럼에도 여기 운문사에는 조왕단 바로 코 밑에서 가마솥에 국을 끓이는 채공간 풍경이 있다.

비로전 마당에서 후원으로 통하는 낡은 문 안쪽을 들여다보면 가마솥과 부뚜막, 아궁이는 물론이고 한 켠에 시루떡처럼 잘 쌓아진 장작더미까지 구경할 수 있다. 사시예불을 올릴 즈음 채공간을 지나가는 참배객 들은 불 조절을 담당하는 화대스님과 국을 끓이는 채공스님이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부뚜막에 서 있는 모습 을 보고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5박 6일이면 바뀔 짧은 소임이라지만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더군

다나 원두반 스님들의 땀방울이 그대로 배어 있는 각종 국거리 채소를 다듬을 때는 조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초 단위로 시간을 쓰는 운문사 일과에서 제 시간에 공양 준비를 마치는 것도 중요하므로 두 스님은 호흡을 맞춰 일을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정성들여 만든 음식은 250여 대중의 건강을 지키고 낱낱의 입맛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을 한다. 그러니 둘의 화합은 온 대중으로 번져나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기도 하다.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사명을 안은 채공 스님들은 평소보다도 더 묵언한다. 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와 숲이 내어준 화력 및 도반 스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묵언이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이오니 발길을 돌려 달라'는 완고한 문구 뒤에 감추어진 스님들의 생활공간 가운데 유일하게 문을 열어둔 곳인 채공간. 그곳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또다른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이제는 민속촌 마네킹이 차지하고 있을 법한 공간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고요히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궁이가 있는 채공간은 운문사에서 단 한 순간도 박제(剝製)된 과거였던 적이 없다. 이 공간은 우리 스님들에게 는 늘 생활의 일부분이자 '수행'의 공간이다.



어쩌다 가마솥에 누룽지를 눌렸거나 숯불에 고구마라도 묻어 둔 날이면 각종 작전이 펼쳐지고, 보일러 없이도 금당 지대방 구들장을 데워 따뜻한 방바닥에 울력으로 얼은 손과 발을 녹이며 이 겨울을 함께 살아 가고 있는 생생한 현재다. 다른 이와 대중을 먼저 떠올리며 아상(我相)을 내려놓고, 일이 아닌 수행을 해 나 가는 또다른 법당이다. 그래서 매달 음력 그믐이면 조왕님께 따로 불공을 드리며 대중의 건강과 화합을 발원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이 공양이 닿기까지 끝없이 베풀어진 은혜를 증명하는 양 겨울 저녁 하늘에 채공간 굴뚝의 연기가 번져가고, 큰 방 대중의 독송소리가 잦아질 즈음, 하루를 마무리하는 채공 스님들의 시선은 자연스레후원 문을 넘어 비로전에 닿는다. 좌충우돌하는 학인생활 속에서 잠깐 맡은 이 소임이 대중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공양으로 이어졌는지 헤아려보면서 하루동안 아궁이처럼 달궈진 마음을 내려놓기도 한다. 맑은 물로 닦아내 솥에 칠한 들기름(녹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기가 고소하다. 그렇게 모든 소임을 다한 채공간엔 아궁이속 잿더미에서 간간히 빛나는 불씨들이 가득하다.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하나의 불씨가 어둠을 밝히듯 오늘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기 위해 우리 스 스로를 담금질한다. ※

[|] 우리 절 이야기 | 는 운문사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수행과 일상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사의 생활속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운문사의 향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처럼

선 유 / 사미니과

세상 모든 것은 '익숙해짐의 연속'이라는 말로 표현되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사람'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인생' 이란 길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은 선택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많은 새로움 속에서 적응하고 익숙해져 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어쩌면 우리는 익숙함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출가'였다. 언젠가 '출가'를 하겠다고 하던 내게 누군가는 인생이 재미없냐고 물어왔다. 그때 나는 당연한 듯 대답했다. "삶은 즐겁지, 다만 행복하지 않을 뿐!"이라고. 일상에 익숙해져 있던 나를 굳이 '출가'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 내던진 것도, 첫 삭발하고 그토록 나의 출가를 바랬던 노스님, 은사스님 곁을 떠나 먼 강원도에서 행자생활을 하겠다고 자처했던 것도, 이전에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새로움 속에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만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주인공'을 찾기 위해!

낯선 곳, 낯선 모습으로 시작한 행자생활. 찰나찰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왜?'라는 질문은 내버려두고 그저 묵묵히 배우고 익혀나갔다. 그렇게 어설픈 행자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내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바로 '사시마지 올리기'였다. 스님들이 1박 2일 출타를 하셔서 나 홀로 사시마지를 올려야 했던 것이다. '아, 제발 신도님들이 조금만 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며 법당 문을 열었다. 그런데 넓디넓은 법당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보살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목탁을 쥔 손에 땀이 찼다. 다 외운 염불인데도 다음 구절이 막힐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소리로 석가모니불을 외쳤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이날처럼 일념으로 석가모니불을 부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나의 첫 사시마지는 끝났고 보살님들은 "오늘 행자님 정근소리가 듣던 중에 제일 크고 좋았어요."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나는 그날로부터 3박 4일 동안 긴장이 풀려서 감기 몸살로 몸져누웠다.

어느덧 시간은 나를 행자복에서 가사장삼 입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고, 사시마지도 무난히 올릴 수 있는 '나'로 만들어 주었다.

여느 때처럼 사시마지를 혼자 올리던 날이었다. 정근을 하는데 문득 머릿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젯밤 책에서 본 인상 깊은 구절, 아침 신문에 실린 헤드라인 기사내용, 별의별 생각이 뭉글뭉글 떠다녔다. 손으로는 목탁을 치고 입으로는 석가모니불을 부르면서 머릿속은 뒤죽박죽 시끌벅적한 시장판이었던 것이다. 허공에 내뱉는 무의미한 석가모니불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러웠다. 목탁 잡는 것이 익숙해지고 염불하는 것에 익숙해지니 어느 때부턴가 내게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당연히 해야할 '의무'가 되어 버렸다. 사시마지가 끝나고 부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이렇게 목탁치고 염불하는 것이 그냥 '습'이 될까 두렵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중노릇하는 자체가 그대로 '쩝'이 되고 '葉'이 될까봐….

"부처님, 저는 부처님이 되려고 중노릇하는 것이지 중이 되려고 중노릇 하는 게 아닌데요. 부처님, 지금 전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나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단지 그때그때 내 앞에 주어진 것을 해내기 위해 방법만 익히고 터득 하려 했을 뿐 매순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것이 내 수행에 어떤 방편이 되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중노릇 하는 데에 익숙해지고, 내가 편하기 위해 '요령'만 익히는 생활, 그 뿐이라면 삭발은 그저 칼날만 닳 아 없애는 일이고 염불은 그저 소리 지음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겨울철 결제 법문때 설우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눈 짊어다 우물에 붓는 것처럼 수행해야 돼. 흙 져다 우물에 붓는 중노릇하면 안 되는 거야. 흙 져다 우물에 부으면 금방금방 붓는 표시는 나지만 언젠가 우물이 사라져. 그런 수행은 법상(法相)이야, 법상. 지옥 가는 종 へ자란 말이야."

삭발에 익숙해지고, 염불을 잘 하는 것이 중노릇 잘 하는 것일까, 이 대중생활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것이 중물이 잘 드는 것일까? 언제부턴가 '수행'이 아닌 '익숙해짐'으로 꽉 찬 일상 속에서 나는 오히려 출가 전보다 더 무지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첫발심 했을 때가 부처를 이룬 때라 했다. 처음 목탁을 잡았던 땀이 꽉 찬 손으로, 법당 안에 울려 퍼지는 내 염불소리를 정말로 부처님이 듣고 계실 것 같아 가슴 벅찼던 그 자리로, 힘들수록 신심을 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생각에 공백이 생길 때마다 의문을 던진다.

내가 짊어진 것은 눈일까. 흙일까? ※



童眞入道

현혜 / 사집과

너무 크면 보이지 않고, 너무 빠르면 느끼지 못하고,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 없다고 했던가? 시간은 모양도 없고 속도도 없고 소리도 내지 않지만 우리는 주변의 많은 모습들로 그 시간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있다.

지금 나는 강원 생활 중이다. 바쁜 일상은 여전히 다름없지만 분명, 예전의 나는 아니다.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걸까? 겨울, 변화, 시작이란 단어는 나를 기억의 저 편으로 이끈다.

내 어릴 적 설은 언제나 새해맞이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절집에서 자란 나에게는 정말 고단한 날이었다. 한 해의 첫 시작인 설날, 그 날도 그랬다. 이른 새벽부터 후원과 법당 사이를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뛰어다니며 온갖 심부름을 해야 했던 초등학교 시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쉴 사이 없이 분주하게 뛰고 있는 나의 조급한 마음에 점점 지쳐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사스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 뭐하고 있니?"라며 또 다른 심부름을 시켰다. 그 순간 서운한 마음에 꾹꾹 눌렀던 화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다.

"내가 염불하고 목탁 칠 테니까 스님이 나와서 일 해요!"라고 마구 쏟아내고는 어디론가 내달렸다.

그렇게 피신한 곳은 풀풀 냄새나고 칼날 같은 바람이 두 볼을 얼게 하는 정랑이었다. 시간이 흘러가면 서 후회하는 마음은 점점 커지고 초조해져 갈 즈음 마침내 공양주 보살님이 데리러 왔다. 내 손을 꼭 잡으면 서 "스님께서 걱정하고 계셔. 어서 가서 참회하자."고 하셨다.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못이기는 척 따라 갔다. 스님들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참회하자, "너는 왜 절집에 와서 힘들게 사느냐?"고 노스님이 물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설움에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가 전생에 맺은 인연 때문이다. 부처님 덕을 입고 사는 우리가 어찌 편안히 살 수 있겠느냐?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다 너의 복을 쌓는 길이다." 노스님은 조근조근 타이르셨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머릿속엔 온통 친구들과 뛰어 놀 생각뿐이었기에 노스님의 이야기는 잔소리로만 들렸다.

평범한 아이들 속에서 나는 늘 미운 오리새끼 같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그 미운오리는 정녕 백조였지 않은가? 나는 왜 나의 아름다움을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하려고만 했을까! 한 살 두 살 철이 들면서 이 세상에는 나와 비슷하게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살며, 갈 곳이 없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나는 스님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자랐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게 인연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자리 잡으며 출가를 하게 되었다.

자라면서 힘들다고 투정하면서도 스님의 염불소리가 좋아서 흉내도 내보았고, 어른스님을 지극한 정성 으로 시봉하는 은사스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씀을 배우기도 하였다. 모든 행동 하나 하나가 은연 중에 나 의 몸에 배어들었고 나는 점점 스님들을 닮아가고 있었다. 하늘을 덮고도 남는 복을 타고나야 출가 수행자 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큰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스님이라는 삶 자체가 구 속 받는다 생각하며 내 자유를 찾아 헤맸지만 그 자유라는 허상 속에서 무상함을 느끼고 후회와 반성을 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회상의 긴 터널을 지나 시간은 다시 나를 청풍료(淸風寮)로 데려온다. 마당 앞 나무들이 쌀쌀한 바람에 모든 걸 떨어버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입가에 미소가 맴돈다. 미련도, 원망도, 후회도 없이 홀가분하게 서 있는 겨울나무는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하면 안 될 것만 같던 철없던 어린 시절에 대한 큰 가르 침으로 다가온다.

나는 발원한다. "다음 생도 또 다음 생도 스님의 길이 아니면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은 이렇게 수승한 길을 걷게 해주신 은사스님께 감사 한다. 올바른 수행자로서 더욱더 정진할 것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광대한 법을 닦고 익혀서 많은 이들에게 널리 회향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இ

> 밝은스승 만나오며 바른신심 굳게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눈이 총명하고 말과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산들고 청청범행 닦고닦아 서리같이 엄한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 > 「이산연선사 발원문」 중에서



시대 反하기:시대 遭遇하기

편집부

시대착오가 미덕이 될 수 있을까? 역사는 늘 그것을 무지와 무능의 소치로 회고한다. 이미 진화이론을 섭렵한 '현대인'은 자신의 시대에 대해 특수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소소한 일상이라도 시대의 '트 렌드'에 합류하지 못한다면 곧 낙오하고 말리라는 불안한 자각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변화 그 자체가 필연성의 궤도에 오른 시대. 현기증 나는 이 속도감에 적응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오류 불가능한, 최상의 미덕이 되고 있다.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 불교가 도심의 거리로 나갔다. 시대에 맞는 현대식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에 점점 다급함이 실리고 있다. '기복 불교'라는 자아비판은 차라리 소박하다. '은둔 불교', '산중 불교', 깨달음 지상주의'가 시대와 현실을 방기(放棄)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자성과 참회의 이름으로, 불교 밖에서보다 안에서 더욱 높게 울려 퍼진다. 이제 불교 대중화와 사회참여는 시대가 요청하는 당위적인 작업임을 선언하고 있다. 불교는 그 유연성과 포용성으로 언제나 특수 시공간과 환경에 적합하게 변형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은 성리학적 입장에서 불교를 배척한 「불씨잡변 (佛氏雜辯)」을 저술했다. 제목만큼이나 원색적인 그의 배불(排佛)정서는 불교의 反인륜성과 反사회성 고 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불교는 사회질서를 무시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나 권리에 무책임한 허무적멸의 종교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사실 정도전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게 되풀이되어 왔다. 불교가 反사회적이며 反시대적이라는 정도전식의 비판은, 그것을 불교의 근본적 성격으로 간과한 점에서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불교를 향한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점에서는 틀렸다.

그렇다. 감히 말하건대 불교는 '본질적으로' 反사회적이며 反시대적인 종교이다. 反사회성과 反시대성은 결국 불교가 '出' 세간적이고 '脫' 세속적임을, 다만 조금 다른 어조로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불교에서 깨달음은 세간을 초월하는 진리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은 세속적 가치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물론 '출세간'은 세간을 외면하지 않으며, '탈세속'은 세속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다. 불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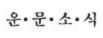
이 세계에 존재하는 고통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한다. 이 고통, 혹은 저 고통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고통의 꾸러미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본적 해결이란 물질문명에 종속된 저 외부세계의 수리를 통해서는 결코 기약할 수 없다. 제도의 개선, 정치경제 · 사회문화적 장치의 계발, 윤리도덕의 강화는 늘 '이'고 통은 해결하되 '저'고통을 발생시킨다. 근본적 해결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식/정신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 믿음이다. 無我의 체득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만 세간의 고통을 재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통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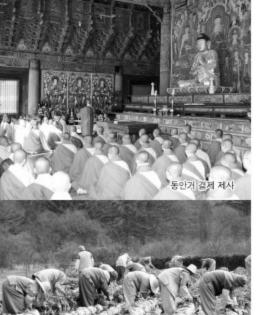
그러나 불행히도, 이 대답은 불교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불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현대식' 불교를 주장하는 비판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비판의 속내에는 바로 이 출세간적 진리, 곧 깨달음 자체에 대한 불편함과 그 깨달음을 지표로 삼는 출가자 집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현대에는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고 다원화되고 있으며, 현대인에게는 종교적 가치 또한 현재의 삶에 매력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불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조차, 불교가 '깨달음의 신화'에서 벗어나 '산중'의 '은둔'을 종식하고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불교 콘텐츠를 개발ㆍ유통시키며, 보살의 이타행을 지금의 사회현실 속에서 하나라도 적극 실현하라고 요구한다. 결코해로울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세속에 기여하라!'로 번역되는 이러한 주문이 함의하는 바는, 그 귀결처는 어디일까?

인도! 다신교인 힌두교의 세력이 강성하던 그 곳에서, 부처의 신격화는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제 출세간적 진리체계이기를 포기하고 사회실천윤리 내지 웰빙-프로그램의 차원으로 스스로 환원할 경우, 과연 불교가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 이 사회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종교적 혹은 영적 단체들이 자신을 발빠르게 '대중화'하고 있다. '종교편향'을 일삼는 저 타종교는 차라리 우리의 고유한 독자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편이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혹은 그 이미지만을 벤치마킹하는 사이비(似而非)-불교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종교적 가치와 수행 또한 상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굳이 불교이어야 하겠는가? 종교상품소비자들은 더 이상 전통과 권위에 매료당하지 않는 다. 불교의 세속화가 과연 불교의 자연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깨달음을 희생하고서 언어지는 불교 대중화는 '불교' 대중화가 아니다. 불교가 '불교'인 핵심이 무엇인가? 물론 불교적 진리의 핵심은 무아와 연기의 법(法)이다. 그러나 종교로서의 불교의 근본은 깨달음에 있다. 진리는, 법은, 불교라는 종교가 역사 속에서 사망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진리요, 법이다. 부처님조차 그 법의 발견자이지 발명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진리를 사변적으로, 교조적으로 혹은 계시로써제시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체득할 수 있다고 말하며, 또한 그 길을 보여주는 데에 불교의 독창성이 있다. '깨달음 지상주의'가 불명예스러운가? 이는 마치 땅속에 뿌리가 있음을 부끄러워하는 나무와 같다.

깨달음은 구식일 수 없다. 깨달음이 시대착오라는 것은 다만 이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사건을 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일 뿐이다. 깨달음에 다가갈수록 시대를 끌어안을 힘이,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힘이 흘러나온다. 어지럽게 질주하는 '현대'의 한복판에서 '현대인'과 함께 멀미를 호소하는 것은 동체대비가 아니다. 물질로, 정보로, 밖으로만 외화(外華)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反할 수 있는 힘만이 이 시대를 잘 포용할 수 있다. 근본으로, 안으로, 수렴하고 응축하여 이 시대에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한다. 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애써 찾아오는 수고로움조차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향상과 진보가, 그 변화의 과장이 이 우주의 인드라망을 뒤흔들 힘을 지녔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









• 11월 11일	겨울철 개학공사 및 동안거 결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 11월 13일	염불을 시작으로 맹자, 서예, 꽃꽂이, 사군자, 일어, 영어, 컴퓨터, 요 꾀아노 등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11월 14일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큰스님의 무자년 동안거 결제법문이 대웅전이 있었습니다.		
• 11월 15일	운문사 자연휴식년제 지역종합학술조사보고회가 시청각실에서 있었 니다.		
• 11월 18일	겨울철 포살 법회가 대응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포살 법사는 일 진 학감스님께서 말아주셨고, 산내 암자스님들도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3일~24일 	겨울준비로 김장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12월 6일 	범어사 무비 콘스님의 '당신은 부처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9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최한 제4회 전국 승가대학 학인 논 공모전에서 금상: 사집반 원효스님, 동상: 사교반 진우스님이 수상 였습니다.		
• 12월 9일~11일	경주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12월 11일 	진광 강사스님께서 제5기 고시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12월 13일 ~14일	지혜로운 마음으로 햇살 같은 희망을! 주제로 속리산 유스타운이 열린 제46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교회부 스님 27명이 다녀왔 니다.		
• 12월 14일	지난 9월 7일에 입재한 오백전 기도 회향에 1,000여 명의 신도남들이 참석한 가운데 효탄 강사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12월 16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12월 17일 	겨울철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운문사 보현율원과 다도 수련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12월 19일 ~ 22일 	동지행사로 3박 4일간 임시 휴강하였습니다.		
• 12월 30일	대교반 스님들의 무료급식 봉사활동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1월 3일 	'성도재일'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철야정진이 있었습니다.		
 1월 4일~6일 	설우 큰스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1월 9일 	4년간의 강원생활을 회향하는 대교반 스님들의 졸업송별회 및 사은회 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 10일 	숭가대학 제45회 졸업식이 대웅보전에서 거행됩니다.		

도와주신 분

신입생 입학시험이 오전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38일간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1월 14일

· 1월 15일

· 선광월불자님	· 임영민불자님	· 이종군불자님	· 오인환불자님
· 이기태불자님	· 권혁창불자님	· 김상달불자님	· 김연식불자님
· 삼신사	· 김영기불자님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등景1



〈토우〉 사교과 금룡 作

한 잔의 차는 한 3학 마음에서 나왔으니 한 조박 마음은 한 잔의 차에 담겼어라 미땅의 이 차 한 잔 한 번 맛보시게 한 번 맛보시면 힘없는 즐거움이 솟아난다네.

- 합허득통(涵虛得通)선사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2-8834(FAX 겸용)